

# 국내 관왕묘의 디지털 큐레이션 방안 연구

인문정보학 석사과정

강훈혁

## 목 차

###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대상 및 방법
3. 선행 연구 검토

### II. 관우신앙과 관왕묘

1. 중국 관우신앙의 형성과 전개
2. 관왕묘의 국내 전파 및 의례 변천
3. 민간의 관왕묘 인식

### III. 온톨로지 설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1. 클래스(Class) 및 속성(Attribute) 설계
2. 관계성(Relation) 설계
3. 데이터베이스 구축

### IV. 디지털 큐레이션 활용 예시

1. 관왕묘 디지털 전시관 구현
  2. 디지털 큐레이션을 통한 스토리텔링 예시
- 1) 고금도관왕묘의 변천: 시대적 배경에 따른 향사의 변화

## 참고문헌

# I.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국내에 산재해있는 관왕묘(關王廟)에 관련한 문헌자료와 멀티미디어 자료 등의 지식정보를 수집 및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큐레이션<sup>1)</sup>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촉한(蜀漢)의 장수 관우(關羽)를 모신 사당인 관왕묘는 본래 조선에 있기에는 매우 이질적인 존재였다. 신앙의 대상인 인물은 까마득한 과거의 외국인이고, 유입 및 건립 배경 역시 명나라 측 인사들의 강압적인 추진에 의한 것이었으며 제사 형식과 의례 또한 조선에는 조금도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다. 일찍이 이와 같은 제사가 없었음은 물론 모방할 만한 규칙조차 상고할 수 없다는 홍문관의 계에는 당시 조선 사회가 관왕묘를 상대로 느낀 당혹감이 여실히 드러난다.<sup>2)</sup>

그러한 당혹감은 무시와 망각으로 연결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었고 또 실제로 한 동안 관왕묘는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지만, 17세기 이후 명나라의 몰락과 관우신앙의 재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적 가치를 부여받고 재탄생했다. 낯설었던 향사는 국가 의례로 편입되었으며 민간의 인지와 숭앙 또한 급증했다. 19세기에 이르면 관왕묘는 단순히 외래에서 유입된 낯선 문물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이 되었고,<sup>3)</sup> 심지어 중국 현지의 관왕묘가 본국의 것보다 못함을 기록하여 은근히 자

---

1) 디지털 큐레이션은 단순히 기존의 아날로그 세계에서 행해진 큐레이션을 디지털 환경에서 복제하는 것과는 다르다. 디지털 인문학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디지털 큐레이션은 아카이브와 인문학 연구실의 경계를 넘어서는 융합적인 지식의 탐구이다. 즉 연구 공간과 그 연구 공간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을 열람자에게 제공하는 아카이브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하고자 함이다. 지식정보의 연구 발전은 완성되고 편집된 결과만이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과정 전체를 포괄하여 디지털 콘텐츠로 남아 가치를 갖는 것이다. 이는 다른 연구자에게 새로운 연구 주제 또는 방향성의 모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또 다른 지식의 확장을 촉진할 수 있다. 김현, 「유교문화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한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 연구」, 세계유교문화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 마스터플랜 연구, 국학진흥원, 2020.

2) 『宣祖實錄』 31년(1598) 5월 12일 丙申, “弘文館啓曰, 關王廟行禮, 博考事傳教矣. 歷考諸書, 往昔群祀之類, 他無所據, 唯宋祖開寶三年, 令有司, 品第前代功臣、烈士以聞, 而關羽亦在其中. 所謂關王廟者, 不待皇明, 而已有其祀矣. 至於天將, 則極其尊敬, 四孟歲暮及其生辰, 皆遣官致祭, 載在會典, 增祀神祇之首. 此經理諸公, 所以趨廟燒香, 而又欲自行禮也. 但以我國言之, 無此等祀禮, 雖欲求其近似相倣之規, 而亦未得考. 既非應祀, 而率爾處之, 則恐未合於典祀之宜.”

3) 『荷齋日記』 1, 辛卯(1891) 4월 29일, “寄書於胡洞伊人處, 移時方乘轎而來, 共往泥岨周覽市物, 上南山, 俯瞰長安, 復往南廟, 瞻謁聖帝, 歸路沽酒六錢飲之, 聯路賞玩而歸寺洞館.”

부심을 표하는 인식까지 나타났다.<sup>4)</sup>

이와 같은 동향은 관우신앙 및 관왕묘에 대한 인식의 변천과 그것을 필요로 했던 조선 왕실의 정치적 의도에 기반하여 나타난 것이다. 조선의 역대 국왕들은 각자가 필요로 하는 가치에 따라 관왕묘의 성격을 규정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방법을 모색했다. 예컨대 숙종(肅宗), 영조(英祖), 정조(正祖) 등이 관왕묘를 존중하고 의례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같았지만 그것을 통해 얻고자 한 정치적 의미는 모두 달랐다.

즉 관왕묘를 대하는 사유와 관점은 그 주체와 시대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었으며, 관련 문헌과 기록 자료 및 연구 성과들 또한 다양한 범주에 걸쳐 있다. 같은 관왕묘를 대상으로 삼는 자료라 해도 그것이 역사, 의례, 종교, 건축 외 기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완전한 일치를 보기 어렵다. 관왕묘가 내포하고 있는 복합적인 주제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원들을 통섭하고 정리하는 시도가 요구된다.

관왕묘에 관해서는 관찬 사서와 문집 등의 여러 문헌에 기록이 남아있으며, 건축물 또한 일부 보존되거나 복원되어 일반 관람자에게도 공개되는 사례가 있다. 현대 연구자들 또한 다양한 주제의 관왕묘 연구를 수행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 대부분은 관왕묘라는 하나의 주제로 수렴하면서도 연관성이 적시되지 못해 파편화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건축물 자체도 지방 각지에 흩어져 있으며, 문헌자료와 연구 성과들 역시 일괄적으로 접근 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다. 즉 작금의 관왕묘 연구 환경은 연구자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의 소모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관왕묘에 관한 지식정보를 종합 및 정리하고 그것을 시각적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큐레이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존 관왕묘와 관련 인물, 문헌, 기록, 유물, 사진 및 기타 개체들을 모아 재구성하고, 각각의 자원들이 유리되지 않고 연관성을 찾아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이를 이용자가 접근하고 열람하기에 편리한 형태로 가시화하여 시각적 인문학(Visual Humanities)<sup>5)</sup>을 수행하려는 시도이다.

4) 『夢經堂日史』 1, 「馬警軔征紀」, 乙卯(1855) 10월 29일, “入關帝廟, 廟制, 外施金碧, 有若精洒, 殿內塵煤堆滿, 塑像與我國南廟懸殊, 全無嚴威氣像.”

5) 시각적 인문학이란 인문지식을 시각적인 형태로 전환하여 그 활용성을 높이려는 시도이다. 디지털 정보시대의 인문지식 수요를 겨냥한 시각적 인문학은 전통적인 문자 텍스트와 뉴미디어상의 시각적 자료가 적정한 문맥으로 엮어져서 감성적인 멀티미디어 텍스트로 재탄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현·임영상·김바로, 『디지털 인문학 입문』(초판 2쇄),

본 연구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 큐레이션은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 각종 문헌 및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연구 자원의 확보 또는 관련 문화콘텐츠의 생산 및 각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기대한다.

## 2. 연구 대상 및 방법

현재 국내 관왕묘의 실제 건축물에 대한 정보와 관련 유물들, 사료 등 문헌자료와 학술논문 등의 연구 성과들은 각 기관에서 디지털 아카이브<sup>6)</sup> 형태로 구축되어 공개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관왕묘의 현황과 위치, 관련 유물에 대한 지식, 각 관왕묘가 갖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의미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각기 취급하는 자료의 특성과 출처에 따라 흩어져 있으므로 종합적인 의미를 도출해내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관왕묘의 건축물들은 서울과 각 지방에 산재해있고, 관왕묘라는 한 대상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문헌이나 연구한 기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 자료 간의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유기적인 연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유리되는 현상은 관왕묘를 연구하려는 연구자나 관련 지식을 얻고자 하는 열람자에게 모두 불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환경을 개선하고자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을 도입하여 관왕묘를 대상으로 연관성을 갖는 자료들을 연결하는 일을 과제로 삼는다. 관왕묘에 대해 어떤 혁신적인 이론을 구축하여 새로이 창조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기존의 아카이브들 속에서 분리된 자료들을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명시함으로써 새로이 재편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종래 관왕묘를 탐구한 연구들은 그 주제와 의도, 연구방법론에 따라 유기적 연결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의미를 상

---

HUEBOOKs, 2018, 133쪽.

6) 디지털 아카이브란 음원, 영상 등 디지털 신호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보존하는 것을 디지털 아카이빙(Digital Archiving)이라 이름하기도 하고, 다른 영역에서는 아카이브 기능을 수행하는 곳에서 소장품의 디지털 사본을 제공하는 경우를 디지털 아카이브라 부르기도 한다. 국내 공공분야 정보시스템의 입장에서 디지털 아카이브의 개념을 정의한다면 그것은 '1차 자료에 관한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정리,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각 기관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온라인 환경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기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능의 하나로 인식하게 되었다. 각 기관과 자료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구분과 명칭은 다를 수 있지만, 아카이빙 자료의 디지털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모두 유사한 성격의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볼 수 있다. 김현 외, 앞의 책, 195~196쪽.

호 보완해주지 못해 유리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관왕묘의 역사적 변천을 배경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관련 지식정보를 디지털 아카이브 데이터로 축적하고, 그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큐레이션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내 관왕묘의 디지털 큐레이션은 연구 대상의 기초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큐레이션을 위한 시각적 표현의 과정을 거친다.

연구 대상의 기초 자료에는 관왕묘에 관한 기록을 서술한 문헌자료, 관왕묘를 대상으로 촬영한 사진과 파노라마 등 멀티미디어 자료 등이 포함된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의 관찬 사서와 개인의 시문 및 산문을 엮은 다수의 사찬 문집에서 관왕묘를 언급한 기사들을 추출하여 분류할 것이다. 멀티미디어 자료는 본 연구자가 현장 답사를 거쳐 촬영한 사진과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를 활용하여 만든 VR 가상 전시관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국내에 산재한 관왕묘는 크게 선조(宣祖) 대에 건립된 관왕묘와 고종(高宗) 대에 건립된 관왕묘로 분류될 수 있다. 건립 및 관리 주체에 관해서는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며, 국가 의례 또는 민간신앙 중 어느 쪽에 속하는가에 관해서도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선조 대에 건립된 국내 최초의 관왕묘들, 즉 서울에 건립된 남관왕묘와 동관왕묘 2기, 지방의 고금도, 남원, 성주, 안동에 각각 건립된 관왕묘 4기를 중심으로 현장 답사와 촬영을 계획하였다. 다만 소실된 것으로 판단된 남관왕묘는 제외하였다.<sup>7)</sup>

제 II장에서는 연구 대상이 되는 관우신앙과 관왕묘의 형성 및 국내 전파 과정을 사료를 토대로 하여 서술하고, 그것이 시대적 변화를 배경으로 어떠한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인식의 변천이 이루어졌는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관왕묘에 관한 문헌 기록과 기존의 개별 인문학 연구들을 통섭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장이 될 것이다.

제 III장에서는 관왕묘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하여 기초 데이터의 생성과 온톨로지(Ontology)<sup>8)</sup> 설계를 진행하고 그것을 시각화된 형태로 큐레이션

7) 본래 남관왕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에서 보존되고 있었으나, 2021년 7월 8일 현장 답사 당시 기존 소재지에서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남관왕묘의 보존 및 이전 여부는 동작구청에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현재는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8) 온톨로지(Ontology)란 정보화의 대상이 되는 세계를 전자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한 데이터 기술 체계이다. 원래 온톨로지라는 말은 철학에서 '존재론'이라고 번역되는 용어로

할 방안을 모색한다. 각 기관의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수집한 문헌자료와 현장 답사를 거쳐 확보한 멀티미디어 자료에서 데이터의 최소 단위인 노드(Node)를 선별하고, 개개의 유형(Class)과 속성(Attribute)을 정의한 후 노드와 노드 사이의 연관성을 명시하는 관계성(Relation)을 규정할 것이다. 정리된 데이터는 MS-SQL을 이용하여 서버에 적재함으로써 RDB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설계된 데이터베이스 속 자료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접근 및 열람 가능한 디지털 큐레이션의 자원으로 기능할 것이다.

제 IV장에서는 관왕묘 디지털 큐레이션의 활용 방안과 방향에 관해 서술한다.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지식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 전시관을 구현하고, 이 안에서 이용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관왕묘와 연관된 사건과 스토리의 서사를 탐색하고 열람할 수 있는지 밝히며, 나아가 연구자가 기존에 미처 상정하지 못한 새로운 의미적 맥락이 발견될 가능성 또한 제시하려 한다.

### 3. 선행 연구 검토

전술하였듯 관왕묘는 연구 주제에 따라 역사, 의례, 종교,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망라할 수 있는 대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왕묘의 유입 배경과 내력, 의례의 변천 등의 개괄을 간략히 살펴보기 위해 기존 관왕묘 연구 성과를 먼저 검토하고, 그것을 디지털 큐레이션으로 구현하기 위한 이론과 개념 및 실천적 방법론을 살펴보기 위해 디지털 인문학 연구 성과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아카이브 사례로서 관왕묘 관련 지식정보 자원을 온라인 환경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관 역시 검토하여 연구에 적용하고자 한다.

조재송(1999)은 『삼국연의(三國演義)』의 문학적 성격과 확산을 검토하고, 그 속에서 묘사된 관우 형상이 관우의 신격화와 관우신앙의 확산에 끼친 영향을 연구하였다.<sup>9)</sup> 관우가 종교적 숭배 대상으로 민간에 받아들여진 원인 중 하나가 중국의 역사

---

서 '존재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의 의미를 갖는 말이었다. 그러한 용어가 정보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틀과 컴퓨터가 정보화 대상(콘텐츠)을 이해하는 틀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틀은 바로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응하는 개념들과 그 개념들 간의 연관 관계이다. 김현 외, 앞의 책, 167~168쪽.

9) 조재송, 『『삼국연의』 관우형상에 대한 사상사적 고찰』, 『중국사연구』 16권, 중국학연구회, 1999.

적, 문화적 특질을 내재하고 있는 문학 콘텐츠에 있었음을 주목하고 그것이 민간 사회가 관왕묘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끼친 영향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2004)는 서울 소재 관왕묘인 동관왕묘의 연혁과 건축 양식, 실측 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sup>10)</sup> 동관왕묘의 내력과 기능을 기술하고 건축학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실측 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는데, 동관왕묘라는 단일 개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는 매우 방대하고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동관왕묘 권역의 각 부속 건축물을 모두 세부적으로 실측하여 기록하고 도면과 사진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다수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종수(2005)는 관왕묘에 대한 조선 왕실 측의 인식이 일신된 숙종 대를 중심으로 관왕묘 의례를 연구하였다.<sup>11)</sup> 숙종을 기점으로 관왕묘 치제가 단순한 의례 이상으로 재조지은(再造之恩)의 환기와 왕권의 강화 및 안정과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도 이용되었음을 적시하고, 그 과정과 후대에 끼친 영향력을 검토하였다. 숙종은 선조 이래 방치와 무관심의 대상이었던 관왕묘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한 최초의 선례로서 이를 중심으로 탐구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자가 국내 관왕묘 인식의 변천을 정리하는 과정에 도움을 받았다.

이유나(2006)는 중국으로부터 조선으로 유입된 관우신앙의 전반적인 전개 과정을 살피고, 관왕묘가 국가 의례로서의 취급과 민간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취급이 판이한 이분화된 신앙 양태였음을 지적하였다.<sup>12)</sup> 또한 선조 대에 건립된 관왕묘와 고종 대에 건립된 관왕묘가 명목상 같은 대상을 숭앙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신앙 형태에 내재된 특성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초기에 국가 의례와 민간 신앙의 두 형태로 전개된 관우신앙이 후기에 이르러 혼재된 양상으로 나타남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구은아(2012)는 중국의 관우신앙이 갖는 역사적 가치와 의미, 그리고 변천사를 검토하였다.<sup>13)</sup> 현지의 관우신앙 형성 과정과 위상의 향상을 검토하고, 그것이 역대 왕조들 개개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종교정책의 일환이었음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관우신앙의 개괄적인 전개를 살펴볼 수 있었다.

---

10) 국립문화재연구소, 『동묘의 건축』, 2004.

11) 한종수, 「조선후기 숙종대 관왕묘 치제의 성격」, 『역사민속학』 21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12) 이유나, 「조선후기 관우신앙 연구」, 『동학연구』 20집, 한국동학학회, 2006.

13) 구은아, 「중국의 관공신앙(關公信仰) 고찰: 관공신앙의 역사적 전개와 현대 관공문화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30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2.

박현규(2013)는 국내 관왕묘들 가운데 전라남도 고금도에 위치한 관왕묘의 내력을 검토하고, 향사 대상 중 하나였던 마조(媽祖)의 존재와 의미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sup>14)</sup> 마조신앙은 관우신앙과는 또 다른 별개의 중국 토속신앙으로서 국내에 관왕묘를 배경으로 존재했던 것은 고금도관왕묘가 유일한 사례이다. 이러한 특성을 밝히고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보임으로써 고금도관왕묘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 성과가 나타나는 계기를 열었다.

유성웅, 장경희(2015)는 상술한 박현규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고금도관왕묘의 창건 배경과 건립 구조, 향사 대상의 변천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연구하였다.<sup>15)</sup> 고금도관왕묘에서 향사한 신격들의 특징과 의미를 살피고 그 변천을 살핌으로써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한, 중, 일 삼국의 역사적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여타 관왕묘들과 차별화되는 고금도관왕묘의 서사를 정리하는 데 있어 도움을 받았다.

배규범, 민관동(2016)은 관우신앙의 입지와 위상이 상승한 배경과 당위를 검토하였다.<sup>16)</sup> 특히 관우라는 인물이 갖는 상징성에 대한 위정자들의 필요와 기대가 나타난 경위를 온전히 정치적 측면에서 검토함으로써 그것이 종교적 상징성과 결합하여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은 현상을 적시하고, 현대에 접어들어 또 다시 변화하고 있는 신앙 양상에 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남호현(2016)은 관왕묘에 대한 조선 왕실의 인식이 변화해가는 과정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검토하였다.<sup>17)</sup> 특히 숙종, 영조, 정조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것이 명-청 양대의 중국 사회와 조선 사회가 정치적, 문화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난 영향력의 산물임을 주장하였다. 조선 왕실의 시선을 중심으로 관왕묘 인식의 변천을 그려내기는 했으나 관왕묘를 향유한 주체가 사대부와 일반 서민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했음에 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김지영(2016)은 관왕묘를 향유한 두 계층, 즉 국가 의례로서 받아들인 계층과 민간신앙으로서 받아들인 계층이 양분되었음을 명시하고 양측의 전개를 종합하여 연구하였다.<sup>18)</sup> 또한 관왕묘가 이전의 인식대로 무반의 충성과 재조지은에 관한 억압적

---

14) 박현규, 「고금도 관왕묘의 마조신단 분석」, 『중국학논총』 39호, 한국중국문화학회, 2013.  
15) 유성웅·장경희, 「고금도 관왕묘 연구」, 『동방학』 32권,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5.  
16) 배규범·민관동, 「정치적 관점에서 본 관우 신격화의 역사적 변모 양상 고찰」, 『비교문화연구』 42권, 비교문화연구소, 2016.  
17) 남호현, 「조선후기 관왕묘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그 의미 -18세기 서울 동·남관왕묘를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101호, 한국역사연구회, 2016.  
18) 김지영, 「조선 후기 관왕묘 향유의 두 양상」, 『규장각』 49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6.



강조만을 내포한 장소가 아니라 조선이 지향한 보편적 가치와도 연관된 장소였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과 향유 주체에 따른 양상의 차이점을 지적한 연구 성과는 본 연구자가 관왕묘의 변천과 영향력을 검토하고 기술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김명준(2016)은 관왕묘 의례가 변화한 과정 중 하나인 관왕묘 악장의 형성 및 개찬 과정을 검토하고 그 정치적 의미를 연구하였다.<sup>19)</sup> 초기에는 결코 조선에 친숙할 수 없었던 관왕묘 의례가 후기에 이르러 국왕이 직접 작성한 악장에 의거한 국가 의례로 발전해가는 과정의 의의는 음악과 문화의 역사에 범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상기숙(2019)은 관우신앙이 발원한 중국과 유입된 한국 양측의 의례 역사와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sup>20)</sup> 특히 신앙 대상으로 여겨지는 관우의 성격이 국가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이며, 그 종교적 성격과 전승 과정에도 개별적인 특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관왕묘 의례 연구 중 상당수가 단일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시대 또한 근대 이전을 연구 범위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 연구 사례이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국내의 관우신앙과 관왕묘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사례로서, 디지털 큐레이션의 대상 자원을 이해하고 관련 지식정보를 검토하는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인문지식의 다양한 관계성을 명시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하는 연구의 의의와 실천적 방법론의 영역은 디지털 인문학의 분야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김현(2016)은 디지털 인문학이 갖는 개념과 의의를 규정하고 그것이 연구, 교육, 응용의 세 영역에서 각기 활용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sup>21)</sup> 그 구체적인 사례로 한국 고문서자료관에서 제공하는 문중고문서를 대상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한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정보화 대상의 온톨로지 설계를 진행하고 관계성을 명시함으로써 스토리텔링의 재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특정 연구 주제의 지식정보에 대한 온톨로지 설계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스토리텔링 가능성의 분석이라는 방향성은 본 연구에서 채용한 핵심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19) 김명준, 「관왕묘 악장의 형성과 개찬의 의미 -정조와 고종대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77권, 민족어문학회, 2016.

20) 상기숙, 「한중 관우의례 비교 연구」, 『동방학』 41권,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9.

21) 김현, 「디지털 인문학과 고문헌 자료 연구」, 『열상고전연구』 50집, 열상고전연구회, 2016.

김바로(2017)는 구한 말 관공립학교의 제도와 교원 인사 기록을 대상으로 ‘제도-인사 아카이브’라 이름한 아카이브 모델을 구축하고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sup>22)</sup> 문헌 자료에 기록된 용어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가공하고 온톨로지를 설계하여 그것을 시각적 형태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 전달하는 정보 전달형 시각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시각화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관해 표, 체계, 통계, 타임테이블, 네트워크, 공간정보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분류 및 제시하고 그것이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질의하고 변화하며 응용될 수 있는 상호작용의 성격 역시 도출하였다.

김지명(2017)은 국채보상운동에 관련한 기록물을 중심으로 기록문화유산의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을 연구하였다.<sup>23)</sup> 역사와 문화의 가장 구체적 증거물인 문화유산과 기록유산의 지식정보가 서로의 연관성을 증명하지 못하고 유리된 채 남아 복합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없음을 주목하고, 이러한 현상을 타파할 수 있는 수단으로 디지털 큐레이션을 제시하였다. 특정 개념에 대한 문헌자료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개체 간 연관성을 명시한 시맨틱 데이터베이스(Semantic Database)<sup>24)</sup>를 구축하고, 그것이 기존에 인식되지 못한 스토리텔링 요소를 추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자가 관왕묘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방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정주영(2018)은 1970년대 소극장의 공연 및 운영 활동과 관련 법안을 대상으로 시맨틱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sup>25)</sup> 구체적 연구 대상으로 1975년 애저또창고극장과 1976~1979년 삼일로창고극장을 선정하여 온톨로지를 설계하고 그 맥락을 들여다봄으로써 당대 연극 공연의 운영 실태와 관련 법안이 미친 영향, 거기에서 파생하는 문화적·일상적 단락에 관한 단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특정 극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대상으로 관련 인물, 문헌, 사건, 개념 등의 대상을 연계하고 그 안

22) 김바로, 「제도와 인사의 관계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근대 학교 자료(1895~1910)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23) 김지명, 「기록문화유산의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 연구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24) 시맨틱 데이터(Semantic Data)란 데이터가 개별적인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체와 유의미한 연결 지점을 찾아 연결된 것을 말한다. 즉 시맨틱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을 수행하되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복수의 데이터가 각각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성을 맺은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현 외, 앞의 책, 151~187쪽.

25) 정주영, 「1970년대 소극장 연극 시맨틱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1975년 애저또창고극장, 1976~1979년 삼일로창고극장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에서 발견되는 이야기를 탐색해나간 과정은 본 연구자가 관망묘를 대상으로 유의미한 맥락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찾는 데 모티브를 제공해주었다.

김지선(2019)은 19세기 중엽 여항전기집(閔巷傳記集)의 대표적 사례인 『호산외사(壺山外史)』, 『이향견문록(里鄕見聞錄)』, 『희조일사(熙朝軼事)』를 대상으로 인물과 가문, 관청, 기타 유관 문헌 등의 여러 지식 개체로 온톨로지를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였다.<sup>26)</sup> 이용자의 질의어에 따라 텍스트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개체 간 관계성이 명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문헌의 관련 인물들 사이의 스토리텔링 요소를 추출하고 재구성하였다.

김현규(2019)는 3·1 운동에 관한 정보와 디지털 콘텐츠를 종합하고 상호 연계하고자 하여 그 실제적인 구현 형태로 LOD(Linked Open Data)<sup>27)</sup>를 제안하였다.<sup>28)</sup> 기존에 존재하는 인물, 사건, 장소 등의 지식 개체에 대한 기초 데이터와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웹 자원을 수집 및 정리하여 연결함으로써 LOD를 구축하고, 그것이 향후 있을 후속 연구와 다른 LOD와의 연계를 통해 더 발전된 탐구 양상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김광우(2020)는 일제강점기 대중예술 활동을 다각적으로 조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대상으로 예술가 겸 흥행 사업가 이철(李哲)을 제시하였다.<sup>29)</sup>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시대적 배경을 갖는 자료와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미진함을 지적하고, 이철에 관련한 5건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전후 관계를 연계하여 이용자가 주체적으로 스토리텔링 요소를 뒤쫓을 수 있는 시맨틱 데이터 설계 기반의 디지털 큐레이션을 구현하였다.

장동룡(2020)은 서울특별시 소재 망우역사문화공원의 가상박물관 설계 구축 방안을 연구하였다.<sup>30)</sup> 망우역사문화공원과 관련한 역사적 인물, 사건, 장소 등의 지식정

26) 김지선, 「19세기 여항전기집 수록 인물 관계망 구현 및 분석 연구 -『호산외사』, 『이향견문록』, 『희조일사』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27) LOD(Linked Open Data)란 웹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공개되는 연계 데이터를 지칭한다. 연계 데이터(Linked data)와 오픈 데이터(Open data)가 결합된 단어로, 웹에 게시되는 데이터에 식별자(URI)를 부여하고 관련 정보를 구조적으로 제공하는 연계 데이터를 저작권 없이 무료로 제공하여 사용자가 정보를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개방형 링크드 데이터(Linked Open Data)」 항목 참조.

28) 김현규, 「3·1 운동에 관한 개방적 연계 데이터 구축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29) 김광우, 「일제강점기 대중예술 활동의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 연구 -오케레코드 사장 이철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30) 장동룡,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주제로 한 가상박물관 설계 구축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보를 대상으로 온톨로지 설계를 진행한 후 그것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파노라마 이미지와 전자지도, 하이퍼미디어 등의 다양한 정보기술을 검토 및 적용하였다.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갖는 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관련 인물과 사건 및 작품들의 맥락을 명시하였으며,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디지털 전시관으로 파노라마 이미지 기반의 VR 공간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자가 디지털 큐레이션을 구축하는 방법론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수민(2021)은 1929년 경복궁에서 개최된 조선박람회를 재현하는 목적의 메타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연구하였다.<sup>31)</sup> 조선박람회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와 문헌자료들을 규합하여 온톨로지를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그것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과 3D 지도, 위키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시각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을 종합하여 조선박람회 디지털 전시관을 구현함으로써 이용자의 상호작용에 따라 정보를 탐색하고 유관 자원을 이해하는 과정을 밝혔다.

전인혁(2021)은 1928년부터 1934년까지 서삼릉으로 이안된 조선 왕실의 태실에 관한 사진, 영상, 문헌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종합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였다.<sup>32)</sup> 태실과 관련 인물, 사건 등에 대한 주요 정보의 의미적 연관성을 명시함으로써 그 안에서 발견된 새로운 연구 성과와 이야기를 다수 추출해냈다. 서삼릉이라는 물리적 공간과 태실에 관한 제도 및 개념, 관련 인물과 문헌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것을 시각화하는 방안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자가 관망묘 관련 지식정보를 다루는 방법론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전준영(2021)은 한의학의 진단과 치료, 약재 등에 관한 지식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수의 임상 사례를 담고 있는 의안(醫案)인 『명의경험록(名醫經驗錄)』을 대상으로 온톨로지 설계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을 연구하였다.<sup>33)</sup> 한의학의 특성상 약재와 그 유효성분이 복합적이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질병과 처방, 그리

---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31) 이수민, 「1929년 조선박람회의 재현을 위한 메타아카이브 구축」,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32) 전인혁, 「조선왕실 태실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연구 -서삼릉 태실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33) 전준영, 「한의학의 처방약재와 치료효과의 지식 아카이브 구축 연구 -『명의경험록』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고 치료 효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식 요소를 종합하고 그 연관성을 시각화하여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각 기관의 관왕묘 관련 현행 디지털 아카이브 사례는 추후 서술 예정)

## II. 관우신앙과 관왕묘

### 1. 중국 관우신앙의 형성과 전개

관우는 본래 촉한 정권의 무장으로서 활동한 실존 인물이다. 『삼국지(三國志)』 『촉지(蜀志)』 「관우전(關羽傳)」에는 그의 행적이 소략하게 기록되어 전한다. 전기에 따르면 관우는 후한(後漢) 말 산서(山西) 지역에서 출생하여 범법을 저지른 후 망명하였고, 촉한 정권의 건국자가 되는 유비(劉備)를 만나 그의 장수가 되었다. 서주(徐州), 백마(白馬), 형주(荊州) 등지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으나 번성(樊城)에서 조조(曹操)와 손권(孫權)의 협공을 받고 부하 미방(糜芳) 등에게 배신을 당하여 패전하고 사망하였다. 진수(陳壽)는 그를 만 명을 대적할 만한 호랑이 같은 신하였으나 자긍심이 너무 강하여 패망했다고 평했고,<sup>34)</sup> 양희(楊戲)는 뛰어난 용맹과 국가를 바로잡은 공적을 칭찬했으나 타인과 교류하고 대응하는 것은 무례했음을 지적했다.<sup>35)</sup> 즉 생전의 관우는 탁월한 명장이자 공신이기는 했으나 당대의 다른 무장들과 비교하여 차별화되는 성품이나 사상을 지닌 인물은 아니었으며 종교적 숭배 대상은 더욱 아니었다.

다만 관우의 무용과 업적에 인상을 받은 일부 지역에서는 그와 관련한 전설과 기담을 만들어 구전하였다. 관우의 고향인 산서 지역과 생전에 군사거점을 두었던 형주 지역에서는 관우의 신령이 인간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다는 믿음이 나타났다.<sup>36)</sup> 그러나 당대(唐代)까지는 그 규모가 크지 않았고, 종교 또는 신앙으로서 구체적인 교리나 향사 의례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다.

관우신앙이 크게 확산한 것은 송대(宋代)부터였다. 송나라는 북방 유목민족의 군사적 위협과 황제의 도교 신앙을 배경으로 관우를 여러 차례 추봉(追封)했다. 전시 상황을 맞이하여 과거의 유명한 무장인 관우의 무용과 충의를 강조하고 국가 내외에 산재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영험이 있기를 소망한 결과 생전 촉한의 일개 무장에 불과했던 관우는 후(侯)에서 공(公)으로, 또 공(公)에서 왕(王)으로 그 신분이

34) 『三國志』 36, 『蜀志』 「關張馬黃趙傳」, “關羽, 張飛皆稱萬人之敵, 為世虎臣. 羽報效曹公, 飛義釋嚴顏, 並有國士之風. 然羽剛而自矜, 飛暴而無恩, 以短取敗, 理數之常也.”

35) 『三國志』 45, 『蜀志』 「鄧張宗楊傳」, “關張趙趙, 出身匡世, 扶翼攜上, 雄壯虎烈. 藩屏左右, 翻飛電發, 濟于艱難, 贊主洪業, 侷跡韓耿, 齊聲雙德. 交待無禮, 並致姦慝, 悼惟輕慮, 隕身匡國.”

36) 김탁, 『한국의 관제 신앙』, 선학사, 2004, 11~13쪽.

계속 상승하였다.<sup>37)</sup> 이러한 국가 차원의 숭앙은 정부의 정치적, 사회적 필요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추진된 것으로, 민간의 호응과 맞물려 관우신앙이 크게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명대(明代)에도 관우신앙은 지속적인 주목을 받았다. 태조(太祖) 주원장(朱元璋)은 전쟁 도중 관우의 신령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설화를 남기고<sup>38)</sup> 수도 남경(南京) 인근에 관우묘를 건립하였다.<sup>39)</sup> 성조(成祖) 또한 “관우가 백마를 타고 명군을 도와 전쟁을 이기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유포하여 북경(北京) 지안문(地安門) 외곽에 백마관제묘(白馬關帝廟)를 짓고 제사를 지냈으며, 무종(武宗)은 남경의 관우묘에 충무(忠武)라 써서 사액하는 등 황실 차원의 관심과 존숭이 이어졌다.<sup>40)</sup>

신종(神宗) 재위 기간은 중국의 관우신앙이 가장 비약적으로 성장한 시기였다. 관우의 위력은 만력(萬曆) 18년(1590)에 ‘협천호국충의대제(協天護國忠義大帝)’로 발휘되었으며, 만력 42년(1614)에 이르러서는 귀(鬼), 신(神), 인(人)의 삼계를 다스리는 ‘삼계복마대제신위원진천존관성제군(三界伏魔大帝神威遠震天尊關聖帝君)’이라는 최고의 신격으로 격상되었다. 이와 더불어 그의 부인을 ‘구령의덕무숙영황후(九靈懿德武肅英皇后)’로, 관평(關平)을 ‘갈충왕(竭忠王)’으로, 관흥(關興)을 ‘현충왕(顯忠王)’으로, 주창(周倉)을 ‘위령혜용공(威靈惠勇公)’으로 봉했으며, 관공묘에 함께 배향된 악비(岳飛)를 관우 휘하의 원수(元帥)로, 육수부(陸秀夫)를 좌승상(左丞相)으로, 장세걸(張世傑)을 우승상(右丞相)으로 승격시켰다. 마침내 관우는 강태공(姜太公)을 대신하여 무묘(武廟)의 주신(主神)이 되어 문성인(文聖人) 공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무성인(武聖人)이 되었다.<sup>41)</sup>

청대(清代)에도 관우신앙은 배제당하지 않고 여전히 국가적 관심을 받았다. 개국 시조 누르하치는 전쟁 승리의 원인을 관우의 신령이 보우한 결과로 선전하였으며 『삼국연의』를 병법서로 여길 만큼 항상 몸 곁에 두었다고 전한다.<sup>42)</sup> 홍타이지는 병자호란(丙子胡亂) 당시 조선으로 천정할 때 관우를 삼군지수(三軍之帥)로 받들었고, 현지에서는 동관왕묘에 자신의 막사를 두고 거처했다.<sup>43)</sup>

37) 배규범 외, 앞의 논문, 321~325쪽.

38) 『星湖僊說』 9. 「人事門」, 關王廟, “鄱陽之役御舟膠淺, 王能現其神, 回風而焚賊艦云云, 然則皇明之崇奉, 自鄱陽始, 而凡軍行所在祀之也.”

39) 『明太祖實錄』 洪武 27년(1394) 정월 13일, “是月建漢壽亭侯關羽廟於雞鳴山之陽. 舊廟在玄津橋西, 至是改作焉, 與歷代帝王及功臣, 城隍廟並列, 通稱十廟云.”

40) 김탁, 앞의 책, 20~21쪽.

41) 구은아, 앞의 논문, 244쪽.

42) 조재송, 앞의 논문, 185쪽.

이후에도 청 황실은 관왕묘의 건립과 제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격식과 위상을 꾸준히 상승시켰다. 세조(世祖) 순치제(順治帝)는 관우를 ‘충의신무관성대제(忠義神武關聖大帝)’로 봉했는데, 이는 동치(同治) 연간에 이르면 역대 황제들이 내린 봉호가 합쳐져 ‘충의신무영우인용위현호국보민정성수정익찬선덕관성대제(忠義神武靈佑仁勇威顯護國保民精誠綏靖翊贊宣德關聖大帝)’라는 26자에 달하는 긴 봉호가 되었다. 청 정부는 관우의 ‘충의’와 ‘신무’를 중심으로 그를 받아들였고, 또 황제마다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관우의 도움으로 극복했다는 의미를 부여하여 이렇게 긴 봉호를 하사한 것이다. 관우는 청 정부에게 있어 ‘충의’로 백성을 이끌어가는 좋은 매개체가 되었으며 ‘신묘한 무공’으로 청 정부를 지켜주는 전쟁신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sup>44)</sup>

정치권뿐만 아니라 민간의 숭배 역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관우의 고향인 산서 지역의 상인들은 관우를 상업신, 재물신으로 모시며 숭앙하였고, 이들의 금융과 유통 등 경제 활동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민간 관우신앙의 전파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sup>45)</sup> 이러한 움직임에는 원말명초의 소설 『삼국연의(三國演義)』를 비롯한 민간 문학의 유행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sup>46)</sup> 『삼국연의』에 등장하는 관우는 능력과 성품 및 행적에 관하여 전기에 기록된 내용 이상으로 큰 찬사와 명예를 부여받고 있으며, 사후에도 영험을 끼치는 존재로 묘사되어 민간의 인기를 크게 끌어모았다.

19세기에 이르면 중국의 관우신앙과 관왕묘는 종파와 문화의 경계에 구애받지 않는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존재로 민간의 생활에 녹아든 모습을 보인다. 서장관으로서 중국에 다녀온 김경선(金景善)은 집집마다 관우를 모시고 수도부터 시골까지 사당을 세우는 풍습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음을 기록했으며<sup>47)</sup> 박지원(朴趾源)은 중국의 어

43) 『續雜錄』 4, 丙子(1636) 12월 30일, “大雪. 體府以夜氣陰霾. 令將士各番守堞. 賊之初到. 造精舍于所破昆箭串兩處. 築三層臺. 至是汗居東關廟. 往來于兩處. 僭侈之具. 不可盡言.”

44) 차미경, 「청대 관공신앙과 관우극의 공연문화적 특징」, 『중국문학연구』 70권, 한국중문학회, 2018, 52~53쪽.

45) 상인들의 회합과 숙박을 위해 건립된 회관(會館)이 관왕묘의 기능을 겸하였고, 이것이 메이지(明治) 시대에 일본으로 유입되어 일본 숙박업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있다. 이마이즈미 준노스케 저, 이만옥 역, 『관우』, 예담, 2002, 345~348쪽.

46) 삼국시대의 역사 전개를 극적으로 각색한 콘텐츠로 재현하려는 시도는 당대(唐代)의 시인들인 두보(杜甫)와 이백(李白)에서부터 청대(清代)의 문학가 모종강(毛宗崗)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지속하였다. 현대에 『삼국연의』로 통칭하는 삼국지 콘텐츠는 특정 시대나 개인의 창작물이 아닌 역사적 산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조재송, 앞의 논문, 171~175쪽.

47) 『燕巔直指』 1, 「出疆錄」, 壬辰(1832) 11월 23일, “蓋其俗崇奉關帝, 殆家戶戶祝. 而上自



느 벽지를 가더라도 사람이 몇 호만 있으면 반드시 화려한 묘를 지어놓고 정성을 들여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관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극성스럽다는 사실을 기록해 전하고 있다.<sup>48)</sup>

## 2. 관왕묘의 국내 전파 및 의례 변천

중국 현지에서는 위와 같은 관우신앙의 확산과 성행이 이루어졌으나 그것이 같은 시점의 조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오히려 선조(宣祖) 이전까지 조선에서는 『삼국연의』에 대한 인지가 미흡했고<sup>49)</sup> 관우에 대한 국가 의례나 종교적 숭앙 역시 일절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임진왜란(壬辰倭亂)을 계기로 입국한 명나라 장수들이 서울 및 지방 각지에 관왕묘 건립을 추진했을 때 선조 이하 조선 조정은 매우 당혹하고 떨떠름한 심정을 감내해야 했다. 사간원(司諫院)이 관왕묘 건립에 소모되는 비용과 인력이 막대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논조로 볼 때 민간의 반응 또한 좋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sup>50)</sup> 선조와 삼사 관원들은 관왕묘 조성과 관련

帝都，至於市墟村落，皆建廟安塑像，其來已久。”

48) 『熱河日記』, 『盜葉記』, 關帝廟, “關帝廟遍天下, 雖窮邊荒徼, 數家村塢, 必崇侈棟宇, 賽會虔潔, 牧豎饁婦, 咸奔走恐後, 自入柵至皇城二千餘里之間, 廟堂之新舊, 若大若小, 所在相望, 而其在遼陽及中後所, 最著靈異, 其在皇城, 稱白馬關帝廟, 載於祀典, 則正陽門右關帝廟是也, 每年五月十三日致祭, 前十日, 太常寺題遣本寺堂上官行禮, 是日民間香火尤盛, 凡國有大災則祭告之, 皇明萬曆時, 特封三界伏魔大帝神威遠鎮天尊, 旨由中出, 我國南關廟壁上所揭, 蓋摹此筆也, 焦竑撰廟碑, 董其昌書, 世稱二絕。”

49) 『宣祖實錄』 2년(1569) 6월 20일 壬辰, “上御夕講于文政殿, 進講近思錄第二卷. 奇大升進啓曰, 頃日張弼武引見時傳教內, 張飛一聲, 走萬軍之語, 未見正史, 聞在三國志衍義云. 此書出來未久, 小臣未見之, 而或因朋輩間聞之, 則甚多妄誕. 如天文地理之書, 則或有前隱而後著, 史記則初失其傳, 後難臆度, 而敷衍增益, 極其怪誕. 臣後見其冊, 定是無賴者裒集雜言, 如成古談. 非但雜駁無益, 甚害義理, 自上偶爾一見, 甚爲未安. 就其中而言之, 如董承衣帶中詔及赤壁之戰勝處, 各以怪誕之事, 衍成無稽之言. 自上幸恐不知其冊根本, 故敢啓. 非但此書如楚, 漢衍義等書, 如此類不一, 無非害理之甚者也. 詩文詞華, 尚且不關, 況剪燈新話, 太平廣記等書, 皆足以誤人心志者乎? 自上知其誣而戒之, 則可以切實於學問之功也.”

50) 『宣祖實錄』 34년(1601) 3월 7일 乙巳, “司諫院上劄. 其略曰, 臣等伏見, 近來天文告警, 赤氣連霄, 地道失寧, 山岳震撼, 其他星流蛙戰之變, 疊見層出, 可驚可駭. 加以訛言屢興, 中外洶洶, 憂危之端, 不一而足. 竊念災不虛生, 必有所召. 致此之由, 豈無其咎? 頃年大賊壓境, 天兵滿國, 防戍之苦, 輸輓之勢, 有不可勝言. 及乎賊退兵撤之後, 瘡痍之民, 訖可少休, 而徭役之繁, 無異前日, 至於焚其室廬, 流離失所, 顛死溝壑者, 不知其幾. 以十年垂盡之命, 應內外無窮之役, 民安得不怨乎? 納粟之輩, 怨於失信; 軍功之徒, 怨於廢棄, 冤枉怨於滯獄; 市井怨於貿易, 諸宮奪人臧獲而民怨; 戶部漸復貢物而民怨, 關廟役軍, 年年徵發而民怨; 砲手保丁, 許令據定而民怨. 至於山陵之役, 量田之舉, 誠所不可廢之事, 而無知小民, 猶且怨咨, 則今之民心, 概可見矣. 伏願殿下, 上畏天譴, 下畏民巖, 躬先儉約, 輕徭薄賦, 凡病民之政, 一切痛革, 如救焚拯溺, 毋循文具. 且當今救民之策, 莫急於修正貢案. 都監之役, 已經累

하여 포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거듭 논박을 주고받았다.<sup>51)</sup> 종전 이후 명나라 장수들이 귀국하자 관왕묘에 대한 조선의 관심은 시들해졌고, 광해군(光海君) 대에도 명나라 인사의 방문과 같은 계기 없이는 특별히 언급될 일도 많지 않았다.<sup>52)</sup>

인조(仁祖) 대의 관왕묘는 군사적 목적으로 몇 차례 언급된다는 특징이 있다. 인조 5년(1627)에 발생한 이인거(李仁居)의 난 당시에는 어영군(御營軍)을 배치할 군사거점으로 동관왕묘가 거론되었으며<sup>53)</sup> 전술하였듯 병자호란 당시에는 흥타이지가 동관왕묘에 자신의 거처를 두고 친정을 지휘했다. 다만 이러한 기록들은 관왕묘의 지속적 활용이나 군사적 가치를 입증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일종의 일회성 사건들에 관한 기록들일 뿐이다. 선대와 마찬가지로 인조는 관왕묘에 무관심했으며 형식적인 관리만을 유지했다.<sup>54)</sup>

관왕묘에 대한 인식이 일신된 시기는 숙종(肅宗) 대였다. 숙종 17년(1691)에 몸소 관왕묘를 방문한 숙종은 건물의 보수와 치제(致祭)를 명했다.<sup>55)</sup> 특히 무인들을 상대로 점찍어 관우의 충성과 절의를 찬탄하는 언사를 보인 것은 그 정치적 의도가 짐작된다.<sup>56)</sup> 남은 재위 동안 숙종은 신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왕묘에 친림하며 예를 행했다.<sup>57)</sup>

---

月，而任事之臣，悠泛度日，可無所爲，赤子嗷嗷，莫肯動念。伏願申飭該官，速令釐正，損益得宜，倒懸之民，庶有再坐生之望矣。”

51) 『宣祖實錄』 34년(1601) 8월 28일 癸巳; 『宣祖實錄』 34년(1601) 8월 29일 甲午; 『宣祖實錄』 34년(1601) 9월 1일 乙未; 『宣祖實錄』 34년(1601) 9월 3일 丁酉; 『宣祖實錄』 34년(1601) 9월 4일 戊戌; 『宣祖實錄』 34년(1601) 9월 5일 己亥; 『宣祖實錄』 34년(1601) 9월 6일 庚子; 『宣祖實錄』 34년(1601) 9월 7일 辛丑; 『宣祖實錄』 34년(1601) 9월 9일 癸卯.

52) 『光海君日記』(正草本) 10년(1618) 11월 18일 癸卯, “傳曰, 劉都督差官上來東關王廟及楊經畧碑閣急急摘奸, 修理以待. 而凡接待等事, 着令該曹, 預爲議處.”

53) 『仁祖實錄』 5년(1627) 10월 1일 甲午, “備局啓曰, 城中守衛, 不可不嚴密. 令扈衛大將, 皆會於闕外門, 各率軍官直宿. 且東大門外, 當置一陣, 以爲城中聲勢, 令宋英望領御營軍, 結陣於東關王廟爲當.”

54) 김탁은 흥타이지가 병자호란 동안 동관왕묘에 기거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인조가 관왕묘를 원한과 굴욕의 장소로 기억하였고, 이 때문에 관왕묘가 형식적이고 소홀한 관리를 받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김탁, 앞의 책, 60쪽.

55) 『肅宗實錄』 17년(1691) 2월 27일 癸未, “上, 下備忘記曰, 噫! 武安王之忠義, 實千古所罕. 今茲一瞻遺像, 實出於曠世相感之意, 亦所以激勸武士, 本非取快一時之遊觀. 咨! 爾諸將士, 須體此意, 益勵忠義, 捍衛王室, 是所望也. 且東南關王廟宇破傷處, 令該曹一體修改, 遣官致祭. 祭文中備述予遐想憂歎之意.”

56) 남호현, 앞의 논문, 286~287쪽.

57) 『肅宗實錄』 29년(1703) 6월 19일 癸巳, “乘輿將發, 都承旨俞集一進曰, 歷臨闕廟之教, 孰不聳動? 玉堂之筭, 似不識聖意所存, 而以義理言之, 吉凶不可同禮, 歌哭不可並行. 何必於今日, 行此盛舉乎? 且天氣盛熱, 請退行. 上不聽. 遂歷過南關王廟, 揖而立顧近侍曰, 此是

본래 신하들은 관왕묘의 입지를 상승시키는 숙종의 행보에 찬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듯하다. 숙종 36년(1710)에 서종태(徐宗泰)와 이이명(李頤命)은 관왕묘에 읍례(揖禮) 이상의 예법을 취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숙종의 언사에 대해 여러 전례를 들어 조심스럽게 반대를 표했다.<sup>58)</sup> 그러나 숙종은 긴 논의를 거친 끝에 여러 반대와 유보 의견들을 무릅쓰고 초기에 행했던 읍례를 배례(拜禮)로 바꾸었다.<sup>59)</sup>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관왕묘는 단순히 명나라의 강압으로 건립된 낯선 외국 무장을 모신 사당이 아니라 임금이 신하에게 절의와 충성을 강조하고 권장하는 정치적 성격을 내포한 장소로 변모했다.<sup>60)</sup>

영조(英祖)와 정조(正祖) 또한 숙종의 인식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켰다. 영조는 관왕묘와 명나라 장수들을 배향한 선무사(宣武祠)에 관원을 보내어 치제하고 자신이 존주대의(尊周大義)를 존송하는 뜻을 밝히도록 명했다.<sup>61)</sup> 즉 이제 관왕묘는 단순히 관우를 모시는 것만이 아니라 청(淸)나라 이전의 중화를 기억하는 매개 역할까지 담당케 하려는 것이 영조의 구상이었고, 이는 소중화(小中華)를 표방하는 조선의 성리학 사회에도 작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다. 신앙 대상이 아닌 역사적 인물로서의 관우가 전적으로 존경받기는 어려운 인물이었음을 고려하면 관왕묘에 관우 자체보다 명나라에 관련한 이념적 가치를 덮어씌우는 듯한 영조의 언행은 매우 정략적이었다.

영조는 「관왕묘기(關王廟記)」를 통해 관우의 충의 해석을 존주-춘추의리-대명의리

生像，比東廟塑像，大有生氣矣。指西壁隅僧像曰，此何爲以設也？近侍對曰，俗稱普淨長老也。上頷之。上又曰，武安精忠大節，萬古昭昭，予之所嘗深慕，而送勅之後，歷入遺廟，瞻揖塑像，曠感尤深，令人怒髮衝冠矣。俞集一曰，聖上一念尊周，辭旨激切，可以鼓忠臣，義士之氣。然此亦近於文具，惟願益勉修攘之策也。上曰，卿言然矣。集一請禁廟中淫祀，從之。仍命依辛未例，致祭於東廟。”

58) 『肅宗實錄』 36년(1710) 3월 2일 丁卯, “上曰, 宣廟朝天將出來時, 親祭關王廟, 必不行揖禮也。宗泰曰, 其時則天將同往設祭, 或行拜禮, 今不必永遵。關王忠勇間世, 而自是異代名將, 與先聖, 先師有間, 親臨行拜, 似過。行揖之外, 無他禮矣。上曰, 號爲武安王, 香室祝文, 亦曰敢昭告于武安王云云矣。頤命曰, 王爵乃追封, 本爵則侯, 雖使生存, 當抗禮矣。”

59) 『肅宗實錄』 37년(1711) 6월 25일 癸未, “上頃年, 幸關王廟, 拜揖當否, 未及考據, 只行揖禮。命考出宣廟朝舊禮於實錄曝曬時。史官書啓以爲, 宣廟行再拜, 上命今後依此行拜禮。”

60) 한중수는 숙종이 관우의 절의와 충성을 칭송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갑술환국(甲戌換局)을 통해 남인 세력을 축출하고 정권을 교체한 시기와 닮아있으며, 이는 각 붕당의 주장에 의존해 정국을 운영해온 종래의 방침을 변경해 자신이 직접 정국을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았다. 한중수, 앞의 논문, 92~93쪽.

61) 『英祖實錄』 1년(1725) 3월 24일 壬戌, “遣官致祭于關王廟及宣武祠。上於送勅路上, 望見關王廟, 教曰, 予於昔年, 歷見東郊武安王廟, 今又南廟當路。遣官致祭, 以表予慕忠欽義之意。宣武祠別爲致祭, 以示予仰體聖祖尊周大義。”

의 맥락과 좀 더 분명하게 연결 지었다. 임진왜란 당시 관우가 현성해서 명군을 도운 일에 대한 전거를 찾은 후 직접 「관왕묘기」를 지어 비를 세우게 했다. 영조는 명조정에서 관왕묘를 조선 땅에 세우게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았다. 하나는 관우의 절의를 드러내 칭송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관우가 현성하여 번방을 보호해 준 공로를 생각해서였다는 것이다. 관왕묘를 세운 근본적 의의-명의 파병-관우가 조선의 승리를 도운 일을 연결 지으며, 이미 멸망한 옛 왕조를 그리는 마음[匪風下泉]이 든다고 했다. 국가의 이익을 절대시하지 않고 '절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존중해 온 명이 조선에 원군을 보내주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천하의 재용을 다 써 버려 결국 쇠망하고 교체되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관우의 사당이 조선에서 어떤 기억과 가치를 상징하는지 재확인했다.<sup>62)</sup>

관왕묘 제사는 영조 20년(1774)에 찬정된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길례(吉禮)」의 소사(小祀)에 포함되어 정식으로 국가 사전(祀典)에 올랐다.<sup>63)</sup> 이외에도 영조가 몸소 갑주를 갖춰 입고 관왕묘에 가 군례(軍禮)를 행했다가 비판하는 간언을 들은 기록을 보면<sup>64)</sup> 공식적인 국가 의례와는 별개로 모범적인 무인과 신하의 상은연중에 강조하고 권장하는 종래의 역할 역시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정조는 즉위 이전부터 영조를 수행하여 관왕묘를 방문해 예를 행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sup>65)</sup> 정조 대의 관왕묘 치제는 주로 능원(陵園) 등에 대한 국왕의 행행(行幸)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이 특징인데, 정조는 자신의 관왕묘 방문을 명나라와 관련시키기보다는, 앞서 숙종과 영조가 행한 관왕묘 의례를 후대 왕인 자신이 몸소 실천한다는 점에 무게중심을 두어 강조하였다.<sup>66)</sup> 이는 관왕묘가 국왕에게 갖는 가치가 다시 한번 변화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미묘하지만 중대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정조 9년(1785), 동관왕묘와 남관왕묘에 숙종, 영조의 어제(御製)와 경모궁(景慕宮), 즉 아버지 장조(莊祖)의 예제(睿製)를 자신이 직접 지은 비문과 함께 새겨 세우도록 명한 것은 정조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한 사례다.<sup>67)</sup>

62) 김지영, 『정조의 예치』, 휴머니스트, 2020, 210~211쪽.

63) 김탁, 앞의 책, 67쪽.

64) 『英祖實錄』 35년(1759) 11월 13일 己未, “大司憲黃景源以所懷陳勉, 優批. 又曰, 臣頃於晝講入侍時, 以陵幸時乘馬事, 有所陳戒矣. 其後懿陵展拜時, 殿下歷臨關王廟, 以甲冑行軍禮而還, 方內無警急之憂, 而人主躬擐甲冑, 非所以身教東宮也.”

65) 『日省錄』, 「英祖」, 丁亥(1767) 2월 28일 壬戌; 『日省錄』, 「英祖」, 戊子(1768) 3월 22일 庚戌; 『日省錄』, 「英祖」, 辛卯(1771) 5월 13일 癸丑; 『日省錄』, 「英祖」, 甲午(1774) 5월 11일 癸亥.

66) 남호현, 앞의 논문, 292~293쪽.

그것은 관왕묘에 대한 존숭이 조선 왕실 차원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임을 직접 명시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속종에서 자신으로 이어지는 계보에 장조를 포함함으로써 그의 복권과 추존을 희망하는 의중이 엿보이는 일이었다.

이와 연계하여 정조는 직접 악장을 지어<sup>68)</sup> 관왕묘 의례에 사용하도록 했다.<sup>69)</sup> 그것은 본래 소사에 속했던 관왕묘 의례가 중사(中祀)로 승격되는 신호탄이었다. 전술한 선왕들의 어제와 함께 정조 자신이 쓴 비문은 관왕묘 제례악의 가사로 활용되었다.<sup>70)</sup> 국가 제례 가운데 대사(大祀)의 경우 그 제례에 해당하는 의식과 절차, 제례음악, 악장을 고루 갖추게 되지만 중사(中祀) 일부, 대부분의 소사(小祀) 그리고 사전(祀典)에 오르지 못한 제례는 이 셋을 다 갖추기보다는 기존의 음악과 악장을 공유하거나 악장 없이 진행하기도 한다. 관왕묘는 영조 대에 소사에 편입된 제례이기 때문에 악장 없이 이어오다가 정조대에 이르러 처음으로 악장을 사용한 것이다. 국가 제례의 악장은 군왕의 지시로 담당 관료가 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데 비해 정조가 친제한 것으로 보아 정조는 이 제례에 특별한 의미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sup>71)</sup>

한편 정조의 관왕묘 방문은 군의 기강과 통솔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목적도 있었던 듯하다. 영조와 마찬가지로 정조 역시 융복 또는 갑주를 갖추고 관왕묘를 방문하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을 수행하는 부대의 장수들과 병사들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실수가 있으면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조 2년(1778)에는 수어영(守禦營)이 질책을 받은 일이 있었고,<sup>72)</sup> 정조 3년(1779)에는 어영청(御營廳)이 실수로 방

67) 『日省錄』, 「正祖」, 乙巳(1785) 9월 25일 辛未, “敎曰, 東南兩廟廟庭碑文粧績正本長廣, 已令將臣進詣奉審矣. 肅廟朝御製御筆碑文, 先朝御製碑文, 景慕宮睿製碑文, 尚不入刻, 實是欠事, 既覽之後, 不容遲滯. 列朝御製, 次第入刻, 予亦欲續撰, 日前實對, 已有筵敎. 兩廟各立二碑, 一碑則前面敬摹 肅廟朝御製, 後面則敬摹 先朝御製, 又一碑則前面書 景慕宮睿製, 後面當親書續撰碑文, 以此知悉. 戶兵判及三營將臣, 通同句管, 監董都廳, 一員啓下, 看役牌將, 每碑各一人差定, 所入物力, 就議大臣, 明日入侍時稟處.”

68) 관왕묘 제례악의 제정 과정과 의의 등에 관해서는 송지원, 「관왕묘 제례악 연구」, 『음악학논총』, 소암권오성박사화갑기념 논문집간행위원회, 2000, 391~420쪽 참조.

69) 『正祖實錄』 10년(1786) 2월 2일 丙子, “上嘗親製關廟樂章, 至是始用之. 樂以三成爲式.”

70) 김지영은 해당 가사의 내용에서 관우가 단순한 충절의 상징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팎에서 ‘정의롭고 합당한 질서’를 혼드는 적들과 싸우는 존재로 그려졌음을 지적했다. 그런 관우의 정신을 본받도록 권장함은 곧 인의에 바탕한 정치 체제를 만들고 유지함으로써 자발적 관우를 만들어내는 것이 왕조의 몫으로 인식되었다고 생각했다. 즉 정조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인들이 관우와 같은 경지를 이룩하게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우와 같은 충성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가치를 지닌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이었다고 보았다. 김지영, 앞의 책, 213쪽.

71) 김명준, 앞의 논문, 12쪽.

72) 『日省錄』, 「正祖」, 戊戌(1778) 9월 2일 戊子, “具戎服, 乘輿出仁和門, 至仁政門外降輿.

포(放砲)하는 바람에 다른 영이 모두 따라 응포(應砲)하게 만든 책임을 지고 어영대장(御營大將) 이경무(李敬懋)가 삭직을 당하는 소동이 있었다.<sup>73)</sup> 정조의 이러한 행동은 무인들을 독려하고 모범적인 무인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숙종 이래 관왕묘가 가지고 있던 최초의 정치적 의미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 뒤의 순조(純祖), 헌종(憲宗), 철종(哲宗) 대에는 다시 관왕묘가 실록에서 언급되는 횡수가 크게 줄어든다. 숙종에서 정조로 이어지는 시간을 거치며 관왕묘 의례가 안정적인 형태로 정착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방문과 의례만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종(高宗) 대는 관왕묘에 대한 조선 왕실의 관심이 마지막으로 폭발했던 시대였다. 고종 20년(1883)에는 서울 북쪽에 북관왕묘가 새로이 건립되어 제식과 절차를 동, 남 두 관왕묘와 같은 것으로 하도록 조치되었고,<sup>74)</sup> 광무 7년(1903)에는 숭의묘(崇義廟)라 이름하는 서관왕묘가 건립되어<sup>75)</sup> 서울 사방에 모두 관왕묘가 들어섰다. 이외에 동래, 개성, 전주, 강화 등 각 지방에도 관왕묘를 건립하는 작업이 병행되었다. 숙종 이래 관왕묘의 정치적 입지와 위상이 꾸준히 상승하기는 했으나 아예 새로운 관왕묘를 다수 건립한 것은 고종 대가 최초였다.

고종의 이와 같은 노력은 조선 및 대한제국 말기 국가 안팎에 산재한 위협 요소들을 물리치고 군신으로서 관우가 가진 영험을 빌고자 하는 희망이 기저에 깔린 것이었겠지만, 그런 바람이 무색하게도 순종(純宗) 1년(1908)에 국가 제사 제도가 대대적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관왕묘 의례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비교적 나중에 세워진 숭의묘와 북관왕묘는 국유로 이속되었지만 동, 남 두 관왕묘와 각 지방의 관왕묘들은 모두 지방 관청에 배당되어 현지 민간의 신앙에 따라 따로 관리할 방법을

---

乘馬由教化門，出崇禮門詣行殿入幕次，改具甲冑。予曰，當展拜關王廟，只槍劍攔後軍隨駕，而先廂前路扎駐事分付。仍乘馬詣關王廟大門外降馬，乘輿入廟門，降輿就版位行禮，仍詣廟內奉審訖，乘輿出廟門降輿，乘馬至教場轅門勞軍。予曰，鳴鑼邊旗幟不爲分立，過左營前騎不爲前導，巡營節次，已失次第，何營旗幟爲前導乎。宣傳奏曰，守禦營云矣。仍降馬陞座。予曰，巡營節次詳在於節目，而各營不知舉行，入轅門駐馬良久，不在前營之何在，巡營一節，不得如儀行之，該營大將及執事宣傳官之舉行，極爲駭然矣。”

73) 『日省錄』, 「正祖」, 己亥(1779) 8월 3일 甲寅, “校理權以綱等啓言, 軍律何等嚴重, 而御營陣中, 誤爲放砲, 以致諸營之應砲, 事極驚駭. 罪關軍律, 臣等以爲, 當該大將爲先削職宜矣, 從之. 教曰, 捻戎使李柱國爲御營大將.”

74) 『高宗實錄』 20년(1883) 9월 25일 甲寅, “教曰, 新建北關王廟, 今已畢役. 祭式與諸般儀節, 依東南廟例爲之. 關西建廟, 亦有年所. 香祝封送之節, 依星州, 安東例爲之. 令本道臣行祭.”

75) 『高宗實錄』 40년(1903) 11월 27일 甲寅, “宮內府大臣署理成岐運奏, 崇義廟營建之役, 今已告竣矣. 奉安之節, 令掌禮院擇日舉行何如, 允之.”

정하도록 조치했다.<sup>76)</sup> 이로써 국가 의례로서의 관왕묘는 사실상 그 생명력을 마감하였고, 다른 형태의 관우신앙만이 민간에 남아 일부 전승되었다.

### 3. 민간의 관왕묘 인식

왕실 차원의 국가 의례와는 별개로 관우를 신봉하는 움직임 역시 민간 차원에서 그 유래가 길었다. 조선 국왕들의 관왕묘 인식이 무인 독려와 대명 의리, 왕권 강화 등에 소용될 수 있는 정치적 가치에 주안을 두고 있었다면, 민간의 관왕묘 인식은 유명한 신령에게 행운과 영험을 빌고자 하는 소박하고 기복적인 신앙에 가까웠다.

비교적 이른 시점에 관왕묘의 존재를 인식하고 기록에 남긴 대표적 사례로는 최부(崔溥)의 『표해록(漂海錄)』이 있다. 성종(成宗) 18년(1487)에 제주도에서 전라도로 바닷길을 가던 도중 표류하여 명나라 땅에 들어간 최부는 적잖은 고생을 거쳐 육로로 귀국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고 겪은 일들을 기록해 남겼다. 이때 명나라 현지에 세워진 관왕묘 몇 곳을 지나쳤음이 확인된다.<sup>77)</sup> 그러나 최부는 관왕묘를 목격했다는 사실 자체만 짚막하게 기록했을 뿐이므로 묘의 배경이 되는 관우신앙이나 의례 등에는 무관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관우신앙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관한 글을 남긴 동시대 인물로는 성현(成俔)이 있다. 성현은 「관왕묘(關王廟)」라는 제목으로 시를 작성하여 남겼는데<sup>78)</sup> 정황상 명

76) 『純宗實錄』 1년(1908) 7월 23일, “大報壇, 萬東廟, 崇義廟, 東關廟, 南關廟, 北關廟及地方關廟의 祭祀를 廢止하고 大報壇基址는 宮內府에서 保管하며 崇義廟, 北關廟는 國有에 移屬하고 萬東廟, 東關廟, 南關廟及地方關廟는 該地方官廳에 下付하여서 人民의 信仰함을 從하여 別로히 管理할 方法을 定함.”

77) 『漂海錄』 2, 戊申(1488) 3월 19일, “過良店驛, 是日晴, 早發過皮口鋪, 高家鳳鋪, 至吳橋縣地方, 又過羅家口, 高官廠等鋪, 關王廟, 至濟南府地方良店驛, 又過桑園兒, 薄皮口鋪, 狼家口鋪, 郭家口鋪, 舊連窩鋪, 至連窩驛, 又至連窩遞運所而泊.”; 『漂海錄』 3, 戊申(1488) 5월 4일, “至撫寧衛, 是日晴, 過東關遞運所, 至驢槽河, 河之北岸, 有大石如槽, 號爲石槽. 諺傳唐張果飼驢之器, 又過國家鋪, 十八里鋪, 雙望鋪, 儀院嶺鋪, 蘆峯口鋪, 鋪, 至陽河, 河源出列陀山. 經撫寧縣城西八里許, 又過民壯教場門, 入撫寧縣城西門, 過關王廟, 寓于撫寧衛. 兔耳, 鐮子, 大崇, 連峯諸山, 圍城之南北, 治西有西關遞運所.”; 『漂海錄』 3, 戊申(1488) 5월 29일, “自遼東登程, 是日晴. 吳璽與千戶田福偕至驛, 引臣等行, 出驛城東門外, 不一里. 乃遼東城也, 兩城間有關王廟.”

78) 『虛白堂詩集』 4, 「關王廟」, “建安天地屯雲雷, 卯金大運挽不回, 將軍慷慨有大志, 欲持橐鑰噓寒灰, 曹瞞區區何大器, 慄狷亦是英雄魁, 山東老表本庸鄙, 顏良文醜非長材, 將軍談笑坐唾掌, 俯睨兩豎如嬰孩, 一劍橫空白馬倒, 二十萬衆如死荄, 脫身西走扶劉氏, 割據劍閣青崔嵬, 身擁貔貅駐樊口, 鷹瞬虎視雄八垓, 何期一夕天不佑, 丈夫壯氣如山摧, 九泉雙眸終不冥, 神鬼飲泣后土哀, 英魂千載遇眞主, 感應吉夢相隨來, 神騎縱橫導前陣, 胡雛散盡無塵埃, 升平百年古來少, 萬民妥帖登春臺, 生扶漢室盡臣節, 死定大功何壯哉, 九州紛紛設廟宇, 薦以蘋藻陳樽壘, 我行適到廣寧城, 殿中遺像高崑崙, 老樹森森蔭堂廡, 斷碑蕪沒生莓苔, 訪古

나라 사행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현지의 관왕묘를 방문하고 소회를 남긴 듯하다. 시에서 관우의 무용과 충의, 업적을 찬탄하는 한편 관우가 신기(神騎)를 보내 명나라 군대의 승리를 도왔다는 대목에서는 관우가 종교적 숭배 대상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행간에 이에 관한 별다른 거부감은 드러나지 않는다.

관왕묘와 관우신앙에 대한 회의 또는 반감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조선으로 전래되어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선조 대부터의 일이다. 명나라를 방문했던 류성룡(柳成龍)은 요동에서 연경까지 수천 리의 성과 마을마다 모두 관왕묘가 서 있고 관과 민간을 가리지 않는 숭앙을 매우 괴이하게 여겼으나, 물어보니 명나라 북방만의 문화가 아니라 천하가 다 그렇다는 대답을 들었음을 기록해 남겼다.<sup>79)</sup> 중국에서는 완전히 보편화되고 일상화된 신앙이 조선 사람에게에는 아직 이질적인 것으로 보였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기록이다.<sup>80)</sup>

임진왜란을 계기로 국내에 관왕묘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자 다양한 비판론이 등장했다. 특히 『선조실록』의 사관들은 관우의 신성을 믿지 않은 것은 물론 명나라의 관우신앙과 의례 자체도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평했다.<sup>81)</sup> 이러한 여론에는 관왕묘 역사에 동원되는 인력과 비용이 임진왜란으로 황폐해진 조선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접목되어 있었다. 윤국형(尹國馨)은 명나라가 지원한 비용이 부족했던 탓에 결국 조선 측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역사를 마쳐야 했음을 밝히며 관우가 충성스럽고 용맹한 장수이기는 했으나 결국 그뿐, 패전하여 살해당한 사람이고 공적이 후세에 미칠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토록 숭앙받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남겼다.<sup>82)</sup>

酸然意不歇，春風落日空徘徊。”

79) 『西厓先生文集』 16, 「雜著」, 記關王廟, “余往年赴燕都, 自遼東至帝京數千里, 名城大邑及閭閻衆盛處, 無不立廟宇, 以祀漢將壽亭侯關公, 至於人家, 亦私設畫像掛壁, 置香火其前, 飲食必祭. 凡有事必祈禱, 官員新赴任者, 齊宿謁廟甚肅虔. 余怪之, 問於人, 不獨北方爲然, 在在如此, 遍於天下云.”

80) 그러나 류성룡은 이후 국내 관왕묘 건립이 추진되고 국가 의례를 지내게 된 시점에서는 기상 변화와 도요토미 히데요시(豐臣秀吉)의 죽음 등을 관우의 영험이 일으킨 일로 인식하였고, 이를 같은 글에 기록해 남겼다. 이러한 류성룡의 인식 변화는 조선 사회의 관왕묘 인식이 변화한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도 생각된다. 『西厓先生文集』 16, 같은 글, “五月十三日, 大祭廟中, 云是關王生日. 若有雷風之異則神至矣. 是日, 天氣清明, 午後黑雲四起, 大風自西北來, 雷雨並作, 有頃而止. 衆人皆喜曰, 王神下臨矣. 既而又於嶺南安東, 星州二邑建廟, 安東則斲石爲像, 星州土塑, 而星州甚著靈異之跡云. 未幾倭酋關白平秀吉死, 倭諸屯悉皆撤去, 此亦理之難測者也, 豈偶然耶.”

81) 『宣祖實錄』 32년(1599) 9월 17일 癸亥, “史臣曰, 雲長非佛也, 而華人設道場於關廟, 其荒誕謬妄, 如是夫!”

82) 『甲辰漫錄』, “中朝人尊敬關王, 國家建廟之外, 家家戶戶, 無不設像, 起居飲食必祭, 至於



헌데 이와는 별개로 서민계층에서는 새로이 유입된 관왕묘와 관우신앙에 대해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지녔거나, 최소한 그 영험을 일부 믿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듯하다. 서강(西江) 지역의 백성들이 어느 날 별다른 이유 없이 공포에 빠져 산으로 피난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들은 밤중에 서울 방향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전시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일종의 집단 공포 현상이었고 류성룡 역시 인심이 안정되지 못해 발생한 일임을 밝혔지만, 일부 사람들은 남관왕묘의 신령이 한 짓이라고 여겨 두려워했다.<sup>83)</sup>

국가 의례의 관점에서 볼 때 관왕묘와 관우신앙은 온전히 그 정치적 의미와 상징성에 근거한 가치를 부여받는 존재였지만, 민간에서는 이처럼 일종의 비현실적이고 신령스러운 힘에 대한 경외와 기복을 근거로 영험을 향유하고자 했다.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 현종(顯宗) 12년(1671)에는 남관왕묘의 관우 소상에 물기가 보이자 다수의 백성이 소상에서 피눈물이 흘렀다는 이야기를 앞다투어 보고했다.<sup>84)</sup>

이 때문에 조선 왕실과 조정은 관왕묘에 대한 민간의 관심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고심해야 했다. 숙종은 관왕묘에 대한 잡인의 출입을 엄금시켰고,<sup>85)</sup> 뒤에는 비록 귀신을 숭상해 분향하는 일은 용인한다 해도 무격(巫覡)이 성행하는 것은 금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sup>86)</sup> 이러한 기준은 후대에도 민간의 관우신앙을 제어하는 기본

出兵馬，尤致敬焉。戊戌春夏間，天兵大至，就南大門外都祭庫峴，立關王廟，大小將官，無不禮焉，至請聖上行禮。己亥臨罷師還，稱爲奉聖旨，建廟於東大門外，留一官員董役。中原雖曰給價，其數無幾，功役浩大，皆出我國財力，動以萬計。事完，國家置官守之。都祭庫則塑像，東大門外則銅像。關王雖是忠勇之將，而身死人手，非功存後世之人，而中原尊敬如此，未知其然。或云高皇帝時，出神兵以助云，然未可知也。”

83) 『西厓先生文集』 16, 「雜著」, 記異, “又京中西江人, 一夜相驚, 多奔避山谷, 或有搬移東西過江者。問其由, 以爲夜中有兵馬廝殺之聲, 自京城而來, 聞者傳相驚駭, 疑有變如此。其後人疑南關王廟神靈所爲云, 人心之不定類此。”; 같은 내용의 기록이 『燃藜室記述別集』 15권 「天文典故」 「災變祥瑞」에도 보인다.

84) 『顯宗實錄』 12년(1671) 10월 17일 乙未, “南關王塑像, 水氣潤濕, 有流下之痕. 京城民爭傳血淚流下云.”

85) 『肅宗實錄』 17년(1691) 3월 4일 庚寅, “上, 下備忘曰, 頃日瞻觀武安王遺像, 美髯顯有剪短之形, 事甚未安. 此等處一新修補, 仍念祖宗朝建祠崇奉, 實出景仰忠節之盛意, 而不禁雜人, 致有此事. 其他傷污處亦多, 使肅清之廟宇, 作一行人褻玩之所. 若不別樣禁斷, 則今日修改, 明日傷破, 殊無致敬之本意. 今後若又有如此之患, 見發於摘奸時, 則當該守直官從重論罪之意, 各別嚴飭.”

86) 『承政院日記』 숙종 29년(1703) 6월 19일 癸巳, “關王廟親幸時, 都承旨俞集一所啓, 頃年東關王廟歷臨時, 禁斷雜人, 嚴加守直事, 申飭矣. 似聞此處, 多有閭巷人淫祀祈禱之事云, 固爲未安, 而既經駐蹕之後, 則事體尤有別焉, 各別禁斷, 俾無如前之弊, 何如? 上曰, 東關王廟歷臨時, 嚴加守直之意分付, 而時時摘奸, 使之隨現治罪矣. 更以此另加申飭, 可也. 左承旨韓聖佑曰, 祈禱之類, 若欲嚴禁, 則禁吏作弊, 不可不慮, 至於昭烈之廟, 亦有歲時伏臘走村翁之事, 此處祈禱, 不必嚴禁矣. 右議政申琬曰, 後世風俗尙鬼, 外方祠廟, 亦多如此之事, 雖

방침으로 작용했다. 즉 관우의 충절과 신성을 강조하고 권장하는 것은 왕실의 공식 입장이므로 그에 대한 민간의 지지가 확산하는 결과는 필연적이니 어쩔 수 없다. 대신 그 명성에 기생하여 국가 의례와는 무관한 형태의 무속적인 신앙 행위가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간의 무속적 신앙이 관왕묘를 중심으로 퍼지는 일을 완전히 저지하지는 못한 듯하다. 영조 22년(1746)에는 엄연히 국가 의례의 대상으로 관리되어야 할 관왕묘에서 버젓이 무당의 기도와 신앙 행위가 있었으며<sup>87)</sup> 영조 37년(1761)에도 동, 남 두 관왕묘에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음사(淫祠)를 금단할 것을 명한 기록이 보인다.<sup>88)</sup>

관왕묘가 이미 성립단계에서 관왕의 현성이라는 영험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명이 보여준 큰 의리[大明義理]를 강조하는 가운데 관우의 현성 신화가 부분적이거나 활용되면서 민간에서 관우의 영험성을 전유하려는 욕구도 더욱 커졌다. 법으로 음사를 금지하는 조치가 통할 리가 없었다. 국가가 관우를 세대를 뛰어넘어 충의와 절의로 무인의 사표가 될 만한 대상으로 여기고 무묘로 만들어갈수록, 관왕의 영험함에 대한 신앙이 증폭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었다.<sup>89)</sup>

국가 의례와는 별개가 된 민간의 관우신앙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했다. 박지원(朴趾源)은 학질(虐疾)에 걸린 환자를 남관왕묘에 들여보내면 병이 낫는다는 세간의 속설을 소개하고, 그것이 거짓된 믿음임을 설명하며 비판했다.<sup>90)</sup> 이는 당시 민간이 관왕묘에 대해 갖고 있던 인상이 어떠했는가를 방증하는 기록임과 동시에 같은 관왕묘를 바라보는 시선이 왕실과 민간의 입장 차에 따라 완전히 이원화되는 결과물을 낳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김경선은 중국에서 관우가 군신이 아닌 재물신으로 모셔지는 현상을 의아해하고 잘못된 것이라 서술했지만,<sup>91)</sup> 정작

以中原事言之，士女亦有焚香祠廟之舉，此則與淫祀異，不必禁斷，至於巫覡祈禱，固可禁矣。上曰，巫女淫祀之弊則禁之，香火虔誠之禱，不必混加防禁矣。”

87) 『承政院日記』 영조 22년(1746) 윤3월 5일 辛丑, “上曰, 勿煩 行敏又啓曰, 關王廟, 自是國家尊敬之所, 先朝御製寶板奉安之處, 事體尊重. 近觀士夫家及常漢輩, 皆以祈禱爲事, 至於下賤雜類, 逐日坌集, 缶鼓之聲, 喧聒不絕, 其不敬褻慢, 莫此爲甚. 守廟庫直, 一向掩匿而同事, 請令所司該曹, 各別禁斷, 而庫直從重科罪, 永杜褻雜之弊.”

88) 『英祖實錄』 37년(1761) 12월 13일 丁丑, “上命近來東南關王廟, 便成淫祠, 特爲申飭禁斷焉.”

89) 김지영, 앞의 논문, 525쪽.

90) 『燕巖集』 7 別集, 「鍾北小選」, 嬰處稿序, “雩祀壇之下, 桃渚之衛, 青藜而廟, 貌之渥丹而鬚儼然, 關公也. 士女患瘡, 納其牀下, 神褫魄, 遁寒崇也. 孺子不嚴, 瀆冒威尊, 爬腫不瞬, 觸鼻不嚏, 塊然泥塑也. 由是觀之, 外舐水匏, 全吞胡椒者, 不可與語味也, 羨鄰人之貂裘, 借衣於盛夏者, 不可與語時也. 假像衣冠, 不足以欺孺子之真率矣.”

그러한 시선은 조선 현지에서도 지배층에서 통용되는 시각이었을 뿐 민간에서는 왕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관우신앙이 전개되고 있었던 셈이다.

---

91) 『燕輶直指』 1, 같은 글, “第五又安關帝像, 卓前排四神像, 外門兩傍, 各立赤兔馬, 如我國關廟之制. 內扁曰富國裕民, 外扁曰財神廟, 以關帝而稱財神, 大不可也.”

### Ⅲ. 온톨로지 설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1. 클래스(Class) 및 속성(Attribute) 설계

국내 관왕묘의 온톨로지 클래스는 행위자(Actor), 장소(Place), 문헌(Document), 사료(Record), 사물(Object), 개념(Concept), 사건(Event), 멀티미디어(Multimedia), 웹 자원(WebResource) 등으로 구성하였다.

| 클래스         | 한글 명칭 | 설명                                                                |
|-------------|-------|-------------------------------------------------------------------|
| Actor       | 행위자   | 관왕묘와 관련한 인물 정보를 담은 데이터. 관왕묘 배향인, 건립인, 기록인 등을 가리킨다.                |
| Place       | 장소    | 관왕묘와 관련한 장소, 공간 정보를 담은 데이터. 관왕묘 자체 또는 관련 건축물 등을 가리킨다.             |
| Document    | 문헌    | 관왕묘와 관련한 문헌 정보를 담은 데이터. 관왕묘의 건립과 배향, 사건 등을 기록한 문헌자료 등을 가리킨다.      |
| Record      | 기록    | 관왕묘와 관련한 기록 정보를 담은 데이터. 관왕묘 관련 문헌 속 기록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리킨다.            |
| Object      | 사물    | 관왕묘와 관련한 사물 정보를 담은 데이터. 관왕묘와 연관된 비석, 금석문, 도상 등을 가리킨다.             |
| Concept     | 개념    | 관왕묘와 관련한 개념 정보를 담은 데이터. 음악, 종교 등 추상적인 무형의 정보를 포괄한다.               |
| Event       | 사건    | 관왕묘와 관련한 사건 정보를 담은 데이터. 관왕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종교적, 역사적 사건 등을 가리킨다.      |
| Multimedia  | 멀티미디어 | 관왕묘와 관련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담은 데이터. 관왕묘 권역을 대상으로 촬영한 사진, 파노라마, VR 등을 가리킨다. |
| WebResource | 웹 자원  | 관왕묘와 관련한 웹 자원 정보를 담은 데이터. 온라인 공간에서 열람 가능한 텍스트 및 멀티미디어 자료를 가리킨다.   |

표 Ⅲ-1. 온톨로지 클래스 설계표

## 1) 행위자(Actor) 클래스

행위자 클래스는 관왕묘 배향, 건립 및 기록 등 관왕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과 단체의 범주는 서브 클래스로 구분하였다.

| 클래스   | 서브 클래스 | 개체 예시                     |
|-------|--------|---------------------------|
| Actor | 인물     | 관우, 진린, 류성룡, 이공익, 안효제 등.  |
|       | 단체     | 예조, 승정원, 홍문관, 장악원, 장서각 등. |

표 III-2. 행위자(Actor) 클래스 설계

행위자 클래스는 7개의 속성을 갖는다. label은 개체의 대표 명칭으로써 한글과 한자 명칭 및 생몰년을 명시하고, infoUrl과 iconUrl은 웹에서 확보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연결하였다.

| 속성        | 설명                                                                                                                                                |
|-----------|---------------------------------------------------------------------------------------------------------------------------------------------------|
| label     | 이순신_李舜臣_1545-1598                                                                                                                                 |
| hangeul   | 이순신                                                                                                                                               |
| hanja     | 李舜臣                                                                                                                                               |
| birthYear | 1545                                                                                                                                              |
| deathYear | 1598                                                                                                                                              |
| infoUrl   | <a h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4900">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4900</a>                                 |
| iconUrl   | <a href="http://dh.aks.ac.kr/Encyves/Graph/icons/portrait/portrait_071.jpg">http://dh.aks.ac.kr/Encyves/Graph/icons/portrait/portrait_071.jpg</a> |

표 III-3. 행위자(Actor) 클래스 개체 예시

## 2) 장소(Place) 클래스

장소 클래스는 관왕묘 자체 혹은 인접 사찰, 유물 소장처와 같은 물리적인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관왕묘를 제외한 장소들의 서브 클래스는 '기타'로 단순화했다.

| 클래스   | 서브 클래스 | 개체 예시                  |
|-------|--------|------------------------|
| Place | 관왕묘    | 동관왕묘, 고금도관왕묘, 안동관왕묘 등. |
|       | 기타     | 서약사, 관운사, 선무사 등.       |

표 III-4. 장소(Place) 클래스 설계

장소 클래스는 대상의 대표 명칭과 주소, 위도, 경도 등을 포함한 8개의 속성을 갖는다.

| 속성        | 설명                                                                                                                    |
|-----------|-----------------------------------------------------------------------------------------------------------------------|
| label     | 동관왕묘_東關王廟                                                                                                             |
| hangeul   | 동관왕묘                                                                                                                  |
| hanja     | 東關王廟                                                                                                                  |
| address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7길 84                                                                                                   |
| latitude  | 37.573154                                                                                                             |
| longitude | 127.018215                                                                                                            |
| infoUrl   | <a h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7987">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7987</a>     |
| iconUrl   | <a href="http://dh.aks.ac.kr/Encyves/Graph/icons/shrine2.png">http://dh.aks.ac.kr/Encyves/Graph/icons/shrine2.png</a> |

표 III-5. 장소(Place) 클래스 개체 예시

### 3) 문헌(Document) 클래스

문헌 클래스는 관왕묘의 건립, 배향, 관람 등 다양한 형태의 관왕묘 관련 기록을 포함하고 있는 각종의 문서들을 대상으로 한다. 각 기록물의 편저자 주체에 따라 관찬과 사찬의 범주를 나누어 서브 클래스로 구분하였다.

| 클래스      | 서브 클래스 | 개체 예시                |
|----------|--------|----------------------|
| Document | 관찬     | 선조실록, 승정원일기, 속악원보 등. |
|          | 사찬     | 갑진만록, 서애집, 성호사설 등.   |

표 III-6. 문헌(Document) 클래스 설계

문헌 클래스는 6개의 속성을 갖는다.

| 속성      | 설명                                                                                                                      |
|---------|-------------------------------------------------------------------------------------------------------------------------|
| label   | 승정원일기_承政院日記                                                                                                             |
| hangeul | 승정원일기                                                                                                                   |
| hanja   | 承政院日記                                                                                                                   |
| writer  | 승정원                                                                                                                     |
| infoUrl | <a h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2243">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2243</a>       |
| iconUrl | <a href="http://dh.aks.ac.kr/Encyves/Graph/icons/old_book.png">http://dh.aks.ac.kr/Encyves/Graph/icons/old_book.png</a> |

표 III-7. 문헌(Document) 클래스 개체 예시

#### 4) 기록(Record) 클래스

기록 클래스는 문헌 속에서 관왕묘를 언급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기록 클래스의 개체는 해당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출처, 즉 문헌 클래스의 개체와 연계된다.

| 클래스    | 서브 클래스 | 개체 예시                   |
|--------|--------|-------------------------|
| Record |        | 실록, 승정원일기, 문집의 개별 기사 등. |

표 III-8. 기록(Record) 클래스 설계

기록 클래스는 원문과 역문, 출처 문헌 등을 포함한 7개의 속성을 갖는다.

| 속성           | 설명                                                                                                                            |
|--------------|-------------------------------------------------------------------------------------------------------------------------------|
| label        | 선조실록_123권_1600_0329_01                                                                                                        |
| date         | 16000329                                                                                                                      |
| originalText | 上行到桃渚洞, 聞提督徑入南關王廟設酌, 乃止輦回避, 由青坡路還宮。                                                                                           |
| translation  | 상이 도저동(桃渚洞)에 이르러 제독이 남관왕묘(南關王廟)에 들어가 작헌례(酌獻禮)를 한다는 말을 듣고 연을 정지시켰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피하여 청파로(靑坡路)를 거쳐 환궁하였다.                         |
| source       | 선조실록                                                                                                                          |
| infoUrl      | <a href="http://sillok.history.go.kr/id/kna_13303029_001">http://sillok.history.go.kr/id/kna_13303029_001</a>                 |
| iconUrl      | <a href="http://dh.aks.ac.kr/~hoonhyeok/image/icons/bookicon.jpg">http://dh.aks.ac.kr/~hoonhyeok/image/icons/bookicon.jpg</a> |

표 III-9. 기록(Record) 클래스 개체 예시

#### 5) 사물(Object) 클래스

사물 클래스는 관왕묘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유물, 석물, 도상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의 형태에 따라 서브 클래스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유물군’ 서브 클래스는 동관왕묘에 비치된 여러 구 관왕묘 소재의 유물들이 일괄적으로 문화재에 지정된 사례인 ‘동관왕묘 소장유물 일괄’ 개체를 위해 따로 지정하였다.

| 클래스    | 서브 클래스 | 개체 예시                   |
|--------|--------|-------------------------|
| Object | 비석     | 완도 고금도 관왕묘비, 북묘 비 등.    |
|        | 금석문    | 경모궁관왕묘비, 속종대왕관왕묘비 중각 등. |
|        | 도상     | 성제묘 무신도, 남원관왕묘 적토마도 등.  |
|        | 고서     | 관왕묘의궤, 관왕묘의식, 송의묘의궤 등.  |
|        | 유물군    | 동관왕묘 소장유물 일괄 등.         |

표 III-10. 사물(Object) 클래스 설계

사물 클래스는 문화재 지정 여부의 명시를 포함한 5개의 속성을 갖는다.

| 속성              | 설명                                                                                                                                                                      |
|-----------------|-------------------------------------------------------------------------------------------------------------------------------------------------------------------------|
| label           | 완도_고금도_관왕묘비_莞島古今島關王廟碑                                                                                                                                                   |
| designated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36호                                                                                                                                                        |
| currentLocation | 고금도관왕묘                                                                                                                                                                  |
| infoUrl         | <a href="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Cpno=2113603360000">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Cpno=2113603360000</a> |
| iconUrl         | <a href="http://dh.aks.ac.kr/Encyves/Graph/icons/stele.png">http://dh.aks.ac.kr/Encyves/Graph/icons/stele.png</a>                                                       |

표 III-11. 사물(Object) 클래스 개체 예시

## 6) 개념(Concept) 클래스

개념 클래스는 관왕묘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되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추상적인 개념을 대상으로 한다. 각각의 형식에 따라 음악, 종교, 의례의 범주를 나누어 서브 클래스로 구분하였다.

| 클래스     | 서브 클래스 | 개체 예시         |
|---------|--------|---------------|
| Concept | 음악     | 힐향곡, 석하곡 등.   |
|         | 종교     | 관제신앙, 마조신앙 등. |
|         | 의례     | 소사, 중사 등.     |

표 III-12. 개념(Concept) 클래스 설계

개념 클래스는 3개의 속성을 갖는다.



| 속성      | 설명                                                    |
|---------|-------------------------------------------------------|
| label   | 힐향곡                                                   |
| infoUrl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6145     |
| iconUrl | http://dh.aks.ac.kr/Encyves/Graph/icons/old_paper.png |

표 III-13. 개념(Concept) 클래스 개체 예시

## 7) 사건(Event) 클래스

사건 클래스는 관왕묘 구성과 관련하여 발생한 구체적인 행위, 또는 관왕묘를 배경으로 발생한 역사적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한다. 관왕묘의 건립과 배향, 그 외 기타 사건들을 각각 범주로 나누어 서브 클래스로 구분하였다.

| 클래스   | 서브 클래스 | 개체 예시                        |
|-------|--------|------------------------------|
| Event | 관왕묘 건립 | 남관왕묘 건립, 안동관왕묘 건립, 송의묘 건립 등. |
|       | 관왕묘 배향 | 마조 배향, 진린 배향, 이순신 배향 등.      |
|       | 기타     | 임진왜란, 이인거의 난, 병자호란 등.        |

표 III-14. 사건(Event) 클래스 설계

사건 클래스는 4개의 속성을 갖는다.

| 속성      | 설명                                                      |
|---------|---------------------------------------------------------|
| label   | 북관왕묘_건립_1883                                            |
| date    | 1883-09-25                                              |
| infoUrl | http://sillok.history.go.kr/id/kza_12009025_002         |
| iconUrl | http://dh.aks.ac.kr/~hoonhyeok/image/icons/toolicon.jpg |

표 III-15. 사건(Event) 클래스 개체 예시

## 8) 멀티미디어(Multimedia) 클래스

멀티미디어 클래스는 관왕묘 건축물 및 묘역 내부의 사물들을 촬영한 사진과 VR 공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자는 현장 답사를 거쳐 스틸 이미지를 촬영하였고, 가능한 경우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를 토대로 한 VR 공간을 제작하여 가상 전시관으로 활용하고자 했다.<sup>92)</sup> 멀티미디어 자원의 형식에 따라 JPG와 VR의 범주를

92) 본 연구에서 활용한 가상 전시관 프로그램은 DH 디지털 큐레이션 저작도구(Copyright

나누어 서브 클래스로 구분하였다.

| 클래스        | 서브 클래스 | 개체 예시                        |
|------------|--------|------------------------------|
| Multimedia | JPG    | 안동관왕묘 전경 사진, 남원관왕묘 탄보묘 사진 등. |
|            | VR     | 안동관왕묘 VR, 남원관왕묘 VR 등.        |

표 III-16. 멀티미디어(Multimedia) 클래스 설계

멀티미디어 클래스는 촬영 날짜와 기기 등을 포함한 5개의 속성을 갖는다.

| 속성        | 설명                                                                                                                                              |
|-----------|-------------------------------------------------------------------------------------------------------------------------------------------------|
| label     | 남원관왕묘_탄보묘                                                                                                                                       |
| location  | 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07-6                                                                                                                              |
| equipment | SM-G973N                                                                                                                                        |
| date      | 2021-09-03                                                                                                                                      |
| infoUrl   | <a href="http://dh.aks.ac.kr/~hoonhyeok/image/Gwanwang/Photos/NWG/nwg-001">http://dh.aks.ac.kr/~hoonhyeok/image/Gwanwang/Photos/NWG/nwg-001</a> |

표 III-17. 멀티미디어(Multimedia) 클래스 개체 예시

## 9) 웹 자원(WebResource) 클래스

웹 자원 클래스는 온라인 공간에서 제공하는 관왕묘 관련 설명과 기록,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각 관왕묘 건축물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 단체, 개념에 관한 디지털 아카이브의 웹 페이지들이 주축을 이루며 디지털 조선왕조실록 기사 등 온라인에서 열람 가능한 기록들 역시 해당된다.

| 클래스         | 서브 클래스 | 개체 예시                          |
|-------------|--------|--------------------------------|
| WebResource |        | 관왕묘 관련 문화재청, 민족문화대백과, 위키백과 자원. |

표 III-18. 웹 자원(WebResource) 클래스 설계

웹 자원은 4개의 속성을 갖는다.

(C) 2017-2021 디지털인문학연구소, AKS)를 이용하여 제작하였음을 밝힌다.

| 속성      | 설명                                                                              |
|---------|---------------------------------------------------------------------------------|
| label   | 문화재청:동관왕묘                                                                       |
| source  | 문화재청                                                                            |
| infoUrl |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VdkVgwKey=12,01420000,11 |
| iconUrl | http://dh.aks.ac.kr/Encyves/Graph/icons/text2.png                               |

표 III-19. 웹 자원(WebResource) 클래스 개체 예시

## 2. 관계성(Relation) 설계

관계성은 각 개체가 서로 유관한 지점을 찾아 연결될 때의 관계를 명시한다. 개체 사이의 관계성을 명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월드 와이드 웹의 세계에서는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라고 불리는 형식이 표준으로서의 지위를 얻고 있다. 웹 주소와 같은 명명법으로 객체에 식별자를 부여하고 두 객체 사이의 관계성을 약속된 서술어로 기술하는 방식이다.<sup>93)</sup> 예를 들어 ‘진린은 고금도관왕묘의 건립자이다.’라는 내용의 관계성을 RDF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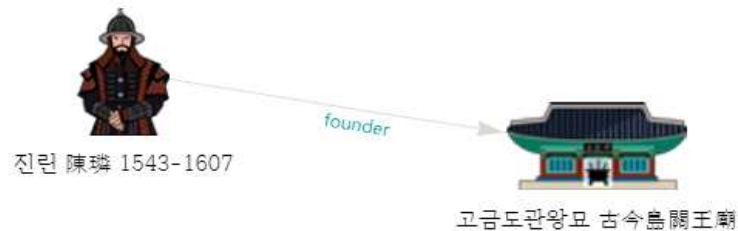


그림 III-1. RDF로 기술한 관계성 명시

이는 진린이라는 행위자(A) 개체가 고금도관왕묘라는 장소(B) 개체와 연결되는 관계어(founder)를 가짐으로써 양자 간의 연관성을 표현해주는 한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 개체 간 관계를 명시하기 위해 사용한 관계성 어휘 목록은 다음과 같다.

93) 김현 외, 앞의 책, 157쪽.

| relation        | Domain | Range | 설명            |
|-----------------|--------|-------|---------------|
| calligrapher    | A      | B     | A는 B가 글씨를 썼다. |
| commemorates    | A      | B     | A는 B를 기념하였다.  |
| contributor     | A      | B     | A는 B가 기여하였다.  |
| currentLocation | A      | B     | A의 현 위치는 B이다. |
| formerLocation  | A      | B     | A의 구 위치는 B이다. |
| founder         | A      | B     | A는 B의 건립자이다.  |
| happenedAt      | A      | B     | A는 B에서 발생하였다. |
| hasPart         | A      | B     | A는 B를 포함한다.   |
| hasSon          | A      | B     | A의 아들은 B이다.   |
| hasSubject      | A      | B     | A의 신하는 B이다.   |
| hasWife         | A      | B     | A의 아내는 B이다.   |
| isEnshrinedIn   | A      | B     | A는 B에 배향되었다.  |
| isNear          | A      | B     | A는 B와 가깝다.    |
| isRelatedTo     | A      | B     | A와 B는 관련이 있다. |
| isShownAt       | A      | B     | A는 B에서 설명된다.  |
| isShownBy       | A      | B     | A는 B에서 묘사된다.  |
| knows           | A      | B     | A와 B는 교류가 있다. |
| member          | A      | B     | A의 소속원은 B이다.  |
| mentions        | A      | B     | A는 B를 언급하였다.  |
| participatesIn  | A      | B     | A는 B의 참여자이다.  |
| performed       | A      | B     | A는 B의 주도자이다.  |
| renovator       | A      | B     | A는 B의 중건자이다.  |
| sameAs          | A      | B     | A와 B는 같다.     |
| type            | A      | B     | A의 유형은 B이다.   |
| writer          | A      | B     | A는 B가 작성하였다.  |

표 III-20. 국내 관양묘 관계성 설계표

### 1) 행위자(Actor) - 행위자(Actor) 관계

행위자 개체 간 관계는 가족 관계 또는 교유 관계를 주로 명시하였으며, 서브 클래스로 구분되는 인물과 단체 간 관계는 단체에 속한 소속원 관계를 명시하였다.

| relation   | Domain | Range | 설명            |
|------------|--------|-------|---------------|
| hasSon     | 인물     | 인물    | A의 아들은 B이다.   |
| hasSubject | 인물     | 인물    | A의 신하는 B이다.   |
| hasWife    | 인물     | 인물    | A의 아내는 B이다.   |
| knows      | 인물     | 인물    | A와 B는 교류가 있다. |
| mentions   | 인물     | 인물    | A는 B를 언급하였다.  |
| member     | 단체     | 인물    | A의 소속원은 B이다.  |

표 III-21. 행위자 - 행위자 관계성

## 2) 행위자(Actor) - 사건(Event) 관계

행위자 개체와 사건 개체 간 관계는 대상이 되는 사건의 주도자, 참여자, 기타 관련자를 구분하여 관계성을 명시하였다.

| relation       | Domain | Range | 설명            |
|----------------|--------|-------|---------------|
| performed      | 행위자    | 사건    | A는 B의 주도자이다.  |
| participatesIn | 행위자    | 사건    | A는 B의 참여자이다.  |
| isRelatedTo    | 행위자    | 사건    | A와 B는 관련이 있다. |

표 III-22. 행위자 - 사건 관계성

## 3) 행위자(Actor) - 장소(Place) 관계

행위자 개체와 장소 개체 간 관계는 장소 클래스의 주를 이루는 관왕묘와 유관한 관계성이 다수를 차지한다. 관왕묘의 건립, 배향, 중건을 실행한 인물과 해당 관왕묘의 관계성을 명시하였다.

| relation      | Domain | Range | 설명           |
|---------------|--------|-------|--------------|
| founder       | 행위자    | 장소    | A는 B의 건립자이다. |
| isEnshrinedIn | 행위자    | 장소    | A는 B에 배향되었다. |
| renovator     | 행위자    | 장소    | A는 B의 중건자이다. |

표 III-23. 행위자 - 장소 관계성

## 4) 문헌(Document) - 행위자(Actor) 관계

문헌 개체와 행위자 개체 간 관계는 문헌의 작성자 혹은 기여자를 명시하였으며, 실록의 경우 기록의 대상이 되는 국왕과의 관계를 ‘관련이 있다(isRelatedTo)’로 명시하였다.

| relation    | Domain | Range | 설명            |
|-------------|--------|-------|---------------|
| writer      | 문헌     | 행위자   | A는 B가 작성하였다.  |
| contributor | 문헌     | 행위자   | A는 B가 기여하였다.  |
| isRelatedTo | 문헌     | 행위자   | A와 B는 관련이 있다. |

표 III-24. 문헌 - 행위자 관계성

#### 5) 문헌(Document) - 기록(Record) 관계

문헌 개체와 기록 개체 간 관계는 기록에 해당하는 텍스트가 문헌 내에 기재된 것이므로 모두 ‘포함한다(hasPart)’로 통일하였다.

| relation | Domain | Range | 설명          |
|----------|--------|-------|-------------|
| hasPart  | 문헌     | 기록    | A는 B를 포함한다. |

표 III-25. 문헌 - 기록 관계성

#### 6) 웹 자원(WebResource) - 기록(Record) 관계

웹 자원 개체와 기록 개체 간 관계는 기록에 해당하는 개별 기사가 디지털 조선왕조실록, 디지털 승정원일기, 한국고전종합 데이터베이스 등 디지털 아카이브에 적재되어 웹 자원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모두 ‘포함한다(hasPart)’로 통일하였다.

| relation | Domain | Range | 설명          |
|----------|--------|-------|-------------|
| hasPart  | 웹 자원   | 기록    | A는 B를 포함한다. |

표 III-26. 웹 자원 - 기록 관계성

#### 7) 웹 자원(WebResource) - 멀티미디어(Multimedia) 관계

웹 자원 개체와 멀티미디어 개체 간 관계 역시 스틸 이미지 및 VR 등의 자원이 디지털 아카이브에 적재되어 웹 자원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모두 ‘포함한다

(hasPart)'로 통일하였다.

| relation | Domain | Range | 설명          |
|----------|--------|-------|-------------|
| hasPart  | 웹 자원   | 멀티미디어 | A는 B를 포함한다. |

표 III-27. 웹 자원 - 멀티미디어 관계성

#### 8) 사물(Object) - 행위자(Actor) 관계

사물 개체와 행위자 개체 간 관계는 사물의 제작자 또는 기여자가 영향을 미친 행위에 주목하여 관계성을 명시하였다. 예를 들어 비석의 경우 비문의 글을 지은 인물과 글자를 새긴 인물이 개별적으로 존재할 경우 관계성에도 구분을 두었다.

| relation     | Domain | Range | 설명            |
|--------------|--------|-------|---------------|
| calligrapher | 사물     | 행위자   | A는 B가 글씨를 썼다. |
| writer       | 사물     | 행위자   | A는 B가 작성하였다.  |

표 III-28. 사물 - 행위자 관계성

#### 9) 사물(Object) - 장소(Place) 관계

사물 개체와 장소 개체 간 관계는 주로 유물과 소장처의 관계로서 사물의 이전 위치와 현재 위치에 해당하는 장소를 각각 구분하여 명시하였다. 혹은 사물이 담고 있는 비문 등의 텍스트가 특정 관왕묘에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하였다.

| relation        | Domain | Range | 설명            |
|-----------------|--------|-------|---------------|
| currentLocation | 사물     | 장소    | A의 현 위치는 B이다. |
| formerLocation  | 사물     | 장소    | A의 구 위치는 B이다. |
| mentions        | 사물     | 장소    | A는 B를 언급하였다.  |

표 III-29. 사물 - 장소 관계성

#### 10) 사건(Event) - 장소(Place) 관계

사건 개체와 장소 개체 간 관계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라는 하나의 연관성을 갖는다. 이에 따라 각 관망묘의 건립 또는 배향, 혹은 역사적 사건과 연관이 있는 관망묘의 사례를 명시하였다.

| relation   | Domain | Range | 설명            |
|------------|--------|-------|---------------|
| happenedAt | 사건     | 장소    | A는 B에서 발생하였다. |

표 III-30. 사물 - 장소 관계성

### 11) 장소(Place) - 장소(Place) 관계

장소 개체 간 관계는 물리적 종속 또는 인접 여부를 명시하였으며, 같은 장소가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다른 명칭을 부여받는 등의 이유로 개별 개체가 사용되었을 때 두 개체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명시하였다.

| relation | Domain | Range | 설명          |
|----------|--------|-------|-------------|
| hasPart  | 사물     | 사물    | A는 B를 포함한다. |
| isNear   | 사물     | 사물    | A는 B와 가깝다.  |
| sameAs   | 사물     | 사물    | A와 B는 같다.   |

표 III-31. 장소 - 장소 관계성

### 12) 장소(Place) - 개념(Concept) 관계

장소 개체와 개념 개체 간 관계는 복수의 장소들이 하나의 분류로 정의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즉 서울, 고금도, 남원, 성주, 안동 등지에 건립된 관망묘들은 각각 건립자, 건립 연도, 배향 대상 등의 요소에서 세부적인 차이를 갖지만, 모두 관망묘라는 하나의 큰 분류로 묶일 수 있음을 밝혔다.

| relation | Domain | Range | 설명          |
|----------|--------|-------|-------------|
| type     | 장소     | 개념    | A의 유형은 B이다. |

표 III-32. 장소 - 개념 관계성

### 13) 개념(Concept) - 개념(Concept) 관계



개념 개체 간 관계는 클래스 자체의 추상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이 있다 (isRelatedTo)'라는 관계성을 명시하는 것으로 단순화했다. 다만 힐향곡과 석하곡의 경우 무안왕묘제약이라는 큰 틀에 종속된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포함한다 (hasPart)'로 명시하였다.

| relation    | Domain | Range | 설명            |
|-------------|--------|-------|---------------|
| isRelatedTo | 개념     | 개념    | A와 B는 관련이 있다. |
| hasPart     | 개념     | 개념    | A는 B를 포함한다.   |

표 III-33. 개념 - 개념 관계성

#### 14) 개념(Concept) - 행위자(Actor) 관계

개념 개체와 행위자 개체 간 관계는 종교와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관계성을 밝히고자 했다. 예를 들어 관왕묘, 관성교, 관제신앙 등의 개념은 관우라는 대상을 기념하기 위해 탄생한 것임을 명시하였다.

| relation     | Domain | Range | 설명           |
|--------------|--------|-------|--------------|
| commemorates | 개념     | 행위자   | A는 B를 기념하였다. |

표 III-34. 개념 - 행위자 관계성

#### 15) 행위자(Actor), 개념(Concept), 장소(Place) - 웹 자원(WebResource) 관계

각 클래스의 개체에 대한 설명과 지식정보 및 멀티미디어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접근 가능한 웹 자원 개체를 통해 열람할 수 있을 때의 관계성을 명시하였다. 웹 자원의 형식에 따라 텍스트는 '설명된다(isShownAt)'로, 멀티미디어는 '묘사된다(isShownBy)'로 구분하여 명시하였다.

| relation  | Domain | Range | 설명           |
|-----------|--------|-------|--------------|
| isShownAt | 행위자 외  | 웹 자원  | A는 B에서 설명된다. |
| isShownBy | 행위자 외  | 웹 자원  | A는 B에서 묘사된다. |

표 III-35. 행위자, 개념, 장소 - 웹 자원 관계성

### 3. 데이터베이스 구축

본 연구에서 온톨로지 설계를 거친 데이터는 일차적으로 MS-Excell에 정리하였고, 이를 MS-SQL에 적재하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정보 개체의 최소 단위인 노드(Node) 데이터와 이들의 관계성을 명시한 링크(Link) 데이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노드 데이터의 총 수량은 3,029건이며, 링크 데이터의 총 수량은 6,019건이다.

| 클래스         | 분류                           | 수량           |
|-------------|------------------------------|--------------|
| Actor       | 관왕묘 관련 인물, 단체 등.             | 129          |
| Place       | 관왕묘 건축물 및 인접 사찰 등.           | 20           |
| Document    | 관찬, 사찬 문헌 등.                 | 96           |
| Record      | 문헌에 수록 기사 등.                 | 2,329        |
| Object      | 비석, 금석문, 도상 등.               | 19           |
| Concept     | 음악, 종교, 의례 등.                | 9            |
| Event       | 관왕묘 건립, 배향, 기타 사건 등.         | 20           |
| Multimedia  | 관왕묘 대상 촬영물 등.                | 170          |
| WebResource | 인물, 개념, 장소 관련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 등. | 237          |
| <b>합계</b>   |                              | <b>3,029</b> |

표 III-36. 노드 데이터 자원 명세

적재된 데이터는 파이썬(Python) 프로그램을 통해 노드 간 관계성을 명시한 시맨틱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시각화하였다.<sup>94)</sup>

94) 시맨틱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시각화에 적용한 방법론은 김현이 개발 및 공개한 스크립트를 따랐다. 김현, 「Semantic Database Visualization」,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개발」 교과목 수업자료, 인문정보학 위키, 2019. ([http://dh.aks.ac.kr/Edu/wiki/index.php/Semantic\\_Database\\_Visualization](http://dh.aks.ac.kr/Edu/wiki/index.php/Semantic_Database_Visual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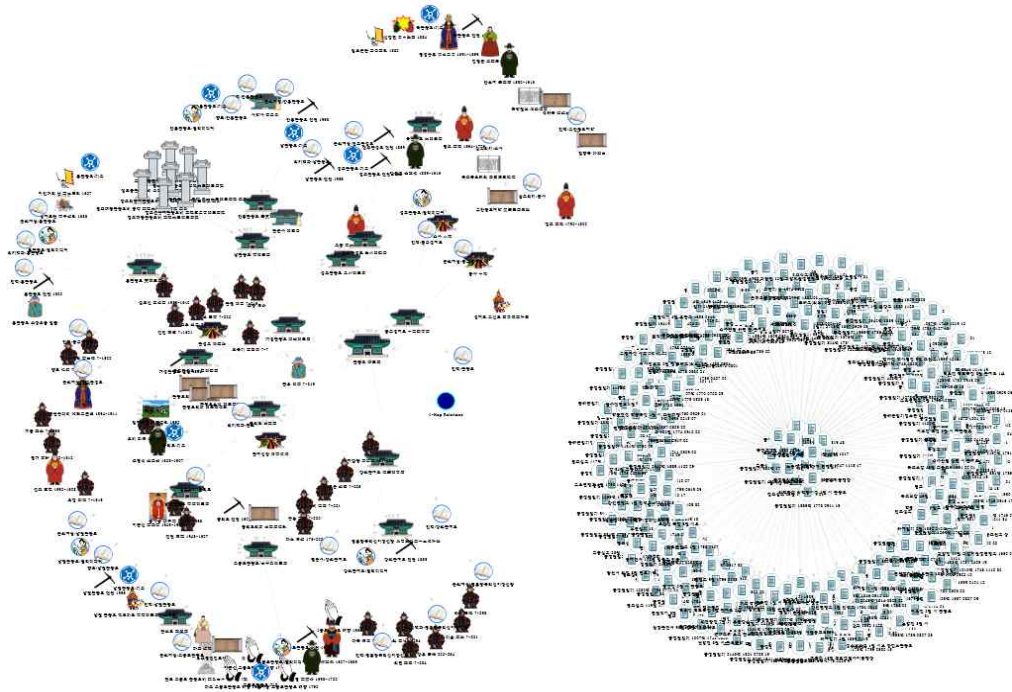


그림 III-2. 국내 관망묘 시맨틱 데이터베이스<sup>95)</sup>

95) 본 연구에서 구축한 시맨틱 데이터베이스는 다음의 URL을 통해 접근 및 열람할 수 있다.  
 ([http://dh.aks.ac.kr/~sandbox/cgi-bin/Story02.py?db=s\\_hoonhyeok&project=gwms&account=guest&pwd=guest&key=관망묘](http://dh.aks.ac.kr/~sandbox/cgi-bin/Story02.py?db=s_hoonhyeok&project=gwms&account=guest&pwd=guest&key=관망묘))

## IV. 국내 관왕묘 디지털 큐레이션 활용 방안

### 1. 관왕묘 디지털 전시관 구현

이 장에서는 앞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국내 관왕묘 관련 지식정보를 온라인 환경에서 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 전시관을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금까지 수행한 과업이 각계에 산재한 데이터를 일정한 형태로 다듬고 설계하여 적재하는 아카이빙에 목적이 있었다면, 여기에서는 그러한 데이터에 접근하고 열람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존재를 전제하여 효과적인 정보 전시와 전달 방법을 고민하는 일, 즉 큐레이션을 모색하고자 한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결과 큐레이션의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네트워크 그래프의 형태로 열람 가능한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현장 답사를 거쳐 제작한 VR 가상 전시관을 토대로 구성한 파빌리온(Pavilion)<sup>96)</sup>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자원에 대한 접근 방법을 정확히 명시해두지 않으면 이용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미디어위키(MediaWiki) 기반의 위키 페이지를 구축하고<sup>97)</sup> 큐레이션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하였다.

---

96) 파빌리온은 본래 테마파크의 개별 전시관을 부르는 용어로, 디지털 인문학에서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된 자료를 조직화하여 보여주는 작은 단위의 전시관을 파빌리온이라 부른다. 사진, 동영상, 파노라마 영상, 음향, 텍스트 등의 다양한 모노미디어들이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고 묶임으로써 맥락과 이야기를 추출하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현은 파빌리온 개념의 도입에 관하여 자료와 자료의 연계를 통해 자료에 담긴 대상물들의 의미와 문맥이 드러나게 하고 그것을 통해 현장의 장소감을 전달할 수 있게 하며, 영상 자료는 대상물의 형상을 담는 데에 머물지 않고 대상물을 중심으로 주변을 보는 시각, 주변에서 대상물을 보는 시각을 도입할 수 있게끔 하는 설계를 추진하였다. 김현, 『인문정보학의 모색』, 북코리아, 2012, 819~822쪽.

97) 위키는 위키 소프트웨어(Wiki Software)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웹 사이트를 말한다. 위키 소프트웨어가 구동함으로써 위키 웹 사이트가 작동하고, 여러 개의 위키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서는 하이퍼링크를 통해 연결된다. 하이퍼링크는 문서 내에서 단어, 문장 등 정보를 확장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자유롭게 부여되어 관련된 주제의 연결을 돕는다. 김현 외, 앞의 책, 6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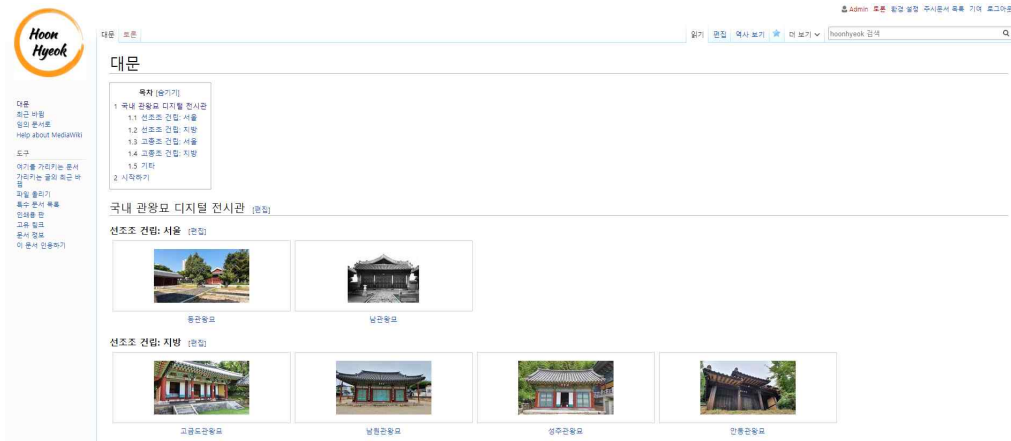


그림 IV-1. 국내 관왕묘 위키 메인 페이지<sup>98)</sup>

위키 페이지는 국내에 산재한 관왕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위에서 구축한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파빌리온의 열람과 같은 시각화 자료 또한 함께 제공하도록 제작되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안동관왕묘 관련 정보와 멀티미디어 자료에 접근하고자 한다면, 해당 위키 페이지 안에서 안동관왕묘의 기초적인 정보를 비롯하여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관련 기록 및 네트워크 그래프, 파빌리온 등을 모두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

## 2. 디지털 큐레이션을 통한 스토리텔링 예시

일반적으로 특정 주제의 전시관을 방문하여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적과 희망 사항은 모두 다르다. 본 연구의 디지털 큐레이션 역시 관왕묘라는 하나의 주제로 수렴한다 해도 이용자의 개별적인 관심과 필요에 따라 전혀 다른 활용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II장에서는 주로 관우신앙과 관왕묘의 큰 역사적 변천을 위주로 서술하였지만, 이 장에서는 그런 거시적 흐름과는 별개로 개별 관왕묘가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지식 정보 및 웹 자원과 연계하여 재구성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사례를 서술하려 한다. 이는 국내 관왕묘 디지털 큐레이션을 활용하는 한 방법임과 동시에 잠재적 이용자

98) 본 연구에서 개설한 위키 페이지는 다음의 URL을 통해 접근 및 열람할 수 있다.  
(<http://dh.aks.ac.kr/~hoonhyeok/wiki/>)

가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독자적인 해석 방향을 탐색해갈 가능성을 미리 살펴보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 1) 고금도관왕묘의 변천: 시대적 배경에 따른 향사의 변화

고금도관왕묘는 명나라 수군 지휘관 진린(陳璘)과 계금(季金)의 주도로 건립된 것으로, 선조 31년(1598)에 건립된 국내 최초의 관왕묘들 가운데 하나이다. 당시 진인(陳寅), 모국기(茅國器), 설호신(薛虎臣) 등의 명나라 장수들이 각기 위치한 지역에 관왕묘를 건립했던 만큼 진린이 자신의 막사를 둔 고금도에 관왕묘 건립을 추진한 것은 이상하지 않다.<sup>99)</sup> 현대 다른 지역의 관왕묘들이 관우를 중앙에 배향하고 좌우에는 관우의 아들인 관평(關平)과 부하 주창(周倉), 왕보(王甫), 조루(趙累)<sup>100)</sup> 등을 배향한 것과는 달리 진린은 고금도관왕묘를 건립하면서 관우를 중앙에 배향하되 좌우에는 해신(海神) 마조(媽祖)를 비롯한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다양한 신격들을 배향하였다.<sup>101)</sup>

99) 『星湖僊說』 9, 앞의 글, “凡我國有廟又四, 處康津天將都督陳璘所建, 後別立一祠於其旁陳璘主壁李舜臣. 配南原則以天將李新芳, 蔣表, 毛承先, 配安東則天將薛虎臣所建, 有石像, 星州則天將毛國器所建.”

100) 이 가운데 관평, 왕보, 조루는 촉한 정권에서 활동한 인물들로서 문헌을 통해 이름과 행적을 확인할 수 있지만, 주창은 『삼국연의』 등 후세대의 창작물에서만 등장하는 가공의 인물이다. 관우의 충성스러운 심복으로 묘사되는 인물인 까닭에 관우의 신격화 과정에서 가공인물에 불과한 주창의 입지까지 함께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101) 『古今島關王廟創建事實』, “設塑像於廟內, 以黃金字書之, 曰皇明勅封協天大帝漢雲長關公之神. 東有三官大帝之位, 上一位曰賜福天官大帝, 中一位曰赦罪地官大帝, 下一位曰解厄水官大帝三牌. 右又立千里望者之神一人. 西有天妃聖母之位, 位牌書之曰護國佑民天妃聖母之位. 其左右有侍女二人, 左曰海渚之神, 右曰南瞻部洲之神.”



에서의 군사행동이 주가 되는 부대 특성상 수군은 지휘체계와 정보, 보급 등 일반적으로 군사작전에서 고려되는 요소들 이상으로 기상의 변화와 파도의 고저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따라서 전투에서 바다가 자신의 편이기를 기원하기 마련인 수군에게 해신인 마조는 관우와 더불어 영험을 빌기에 매우 적절한 신격이었을 것이다.

준공 이후 진린은 직접 제의를 주관하는 등 성의를 보였으나 같은 해 12월에 발발한 노량해전을 끝으로 전쟁이 종전 국면을 맞으면서 귀국했기에 더는 묘역을 관리할 수 없었다. 서울의 관왕묘가 그러했듯 고금도관왕묘 역시 명나라 인사들의 귀국 이후 일상적인 관리만을 받았을 뿐 별다른 관심의 대상은 되지 못했다.

얼마간 세간의 인지로부터 멀어진 고금도관왕묘가 첫 번째 변화를 맞은 것은 현종 7년(1666)이었다. 당시 전라우도 수군절도사로 부임한 유비연(柳斐然)은 고금도관왕묘를 중수하고 중앙의 정전을 기준으로 동무(東廡)와 서무(西廡)를 새로 지어 진린과 이순신을 배향하였다. 이로써 고금도관왕묘는 기존의 권역을 확장하여 ‘品’ 형태의 구조를 확립함과 동시에 노량해전에 참전한 조명 연합군의 두 지휘관을 함께 향사하는 관왕묘로 거듭났다.<sup>104)</sup>

---

104) 유성웅 외, 앞의 논문, 382~38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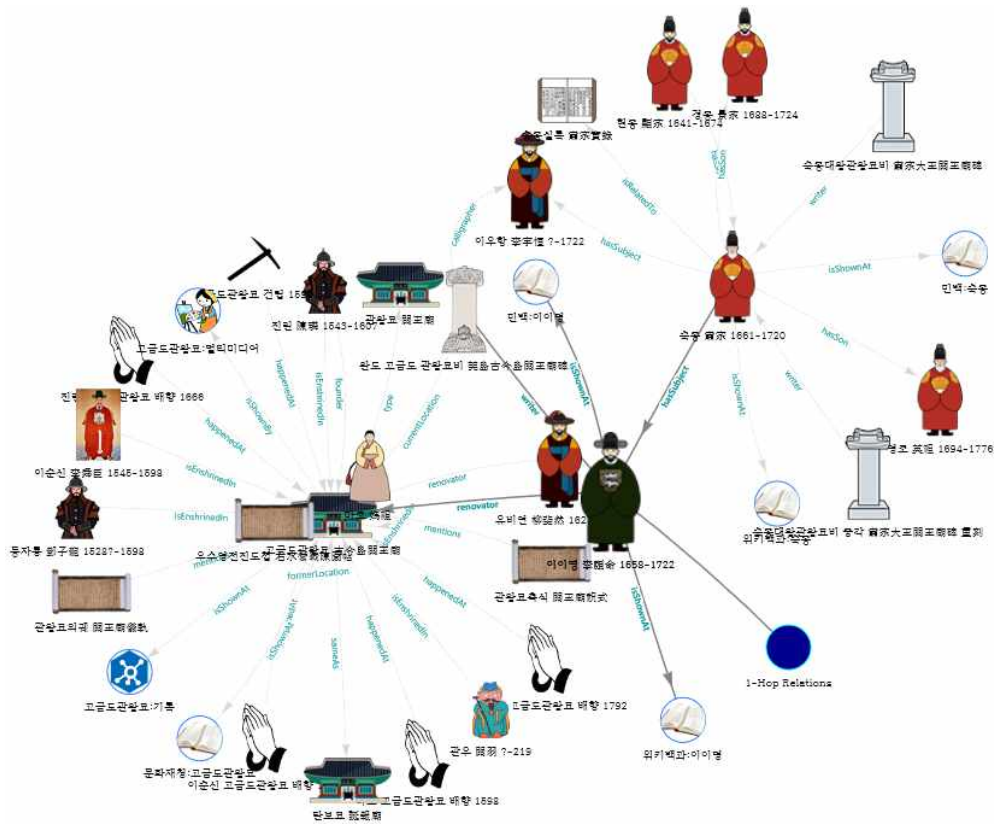


그림 IV-3. 이이명을 중심으로 펼친 네트워크 그래프

고금도관왕묘가 두 번째 변화를 맞은 것은 숙종 대이다. 전술하였듯 숙종은 기존 조선 사회에 이질적이고 무관심한 존재로 받아들여졌던 관왕묘의 인식을 크게 일신시켰는데, 서울의 관왕묘뿐 아니라 지방의 관왕묘들 역시 중수와 정비의 대상이 되었다. 숙종 36년(1710) 숙종은 앞서 유비연에 의해 고금도관왕묘에 모셔진 진린과 이순신의 향사를 이이명 등 조정 대신들과 논의하고 규정하여 국가 의례로 받아들였다.<sup>105)</sup> 고금도관왕묘의 정비된 의례는 다른 지역의 관왕묘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105) 『肅宗實錄』 36년(1710) 12월 17일 丁丑, “禮曹啓言, 大臣於前秋, 以全羅道 古今島, 陳都督璘及忠武公 李舜臣祠宇賜額事, 陳達蒙允. 追聞陳都督, 創建關王廟, 其後追享陳都督及李舜臣於東廡, 而與關廟, 地勢逼近, 不可限以垣牆. 今若賜額, 則便是關廟額號也. 關王當與至尊, 分庭抗禮之人, 不當賜額於其廟, 陳都督亦天朝奉命之將, 我朝不可以臣禮待之. 且與李舜臣, 同享致祭, 節目多妨礙, 請議於大臣. 判府事李濡以爲, 若用宣武, 武烈祠之例, 只揭美稱於關廟, 且去宣額二字, 似得宜, 祭禮亦依宣武儀式, 而至於李舜臣, 既與都督, 並享一室, 則所重在焉. 又其忠勞特異, 凡係崇報之典, 不必拘於常格. 差官行祀之際, 仍令一體行之, 恐無損於國體. 左議政徐宗泰以爲, 新廟果非別建, 而享於廡宇, 則一廟之內, 揭額

듬해 속종은 성주, 안동 두 관왕묘의 향사 절목 역시 고금도와 마찬가지로 하도록 정했다.<sup>106)</sup>



그림 IV-4. 안동 고금도 관왕묘비 촬영 사진

속종 39년(1713)에는 고금도관왕묘의 건립 배경, 내력, 관우 및 진린과 이순신의

於廡宇，事甚不便。只當以關王廟，舉其大而為稱，至於祭禮，則都督祭式降香祝辭，官員執事，當遵武烈祠，宣武祠之例。李舜臣則我朝人，賜額祠院，常時祀享，本無朝廷遣官之規，只當依他祠廟之例，以儒，校生行之。雖在一室之內，此出於事有降殺而致然，恐無所妨。右議政金昌集以為，若以美稱之，包得兩廟之義者，宣額于關廟，而去其賜額二字，則未見其為害義。李舜臣雖是我朝人，仍令僉使，一體行之，亦恐無妨。判府事李頤命以為，箕子之禮，庶推於關廟，都督之位，可班於石，李諸公，稱廟而揭額，不為無所據矣，但不可謂之宣額耳。文廟從享，亦多我國之賢，而春秋釋菜，差官而祭，蓋其所重，在於聖廟也。二品以上常調武臣之卒，朝廷亦猶遣官致祭，李舜臣之功，國朝以來所未有，雖祠廟常祀，歲再遣官，崇報之道，未或過矣。命用左相議。禮曹又奏，京中關王廟祭日，用驚蟄，霜降，春秋各以此日設行之意，亦為知委。饌品一依宣武祠，香，祝則當自京下送，而雖以聖廟規例言之，東，西廡，無別為祝告之事，關廟祝文末端，添入陳都督，李舜臣配食之意，似當。上從之。”

106) 『肅宗實錄』 37년(1711) 1월 3일 壬辰, “日前, 上以古今島關王廟香祝齋去單子, 問于政院曰, 星州, 安東兩邑關王廟享祀, 亦依古今島享祀事, 曾令本道, 定式舉行, 今入馬牌單子, 只是古今島一處者, 何也? 政院招問禮曹郎廳, 對以安東, 星州關王廟現存形止, 未能詳知, 當發問於本道後舉行. 上教以癸未年駕次南關廟時, 令兩邑關王廟現存形止, 查問本道後, 因本道狀聞, 禮曹覆啓, 已令勿為廢置, 另加修補. 今該曹之更欲發問於本道者, 似未詳其時曲折也. 政院請推禮曹堂郎, 仍令與古今島, 一體舉行, 從之. 至是, 禮曹更定節目以入, 仍啓曰, 聖意既感其精忠義烈, 且為中朝將士東征時所建, 愾然有《匪風》, 《下泉》之思, 則成命之下, 何敢容議? 安東關廟, 萬曆戊戌, 眞定營都司薛虎臣所建, 有石像. 初在府城內北山之頂, 立碑以記東征之役, 丙午移安西岳寺東臺. 碑文漫漶, 而碑陰諸將名號俱存, 廟去寺三四間許, 廟前地亦三四間許, 而有層階, 欠平坦. 星州關廟在東門外, 萬曆丁酉, 天將茅國器所建, 有塑像. 廟宇三間, 庭廣二間許云. 安東之中間移設, 未知其故, 而今既自朝家享祀, 則事體異於前, 不可附置僧舍之側, 且其地形, 不得平坦, 則恐難行祀. 星州廟庭, 只二間許, 則亦狹窄, 過今番享祀後, 竝令從容看審, 啓聞變通. 從之.”

사적을 기록한 고금도 관왕묘비가 세워졌다. 이이명이 비문을 지었고, 이우항(李宇恒)이 글씨를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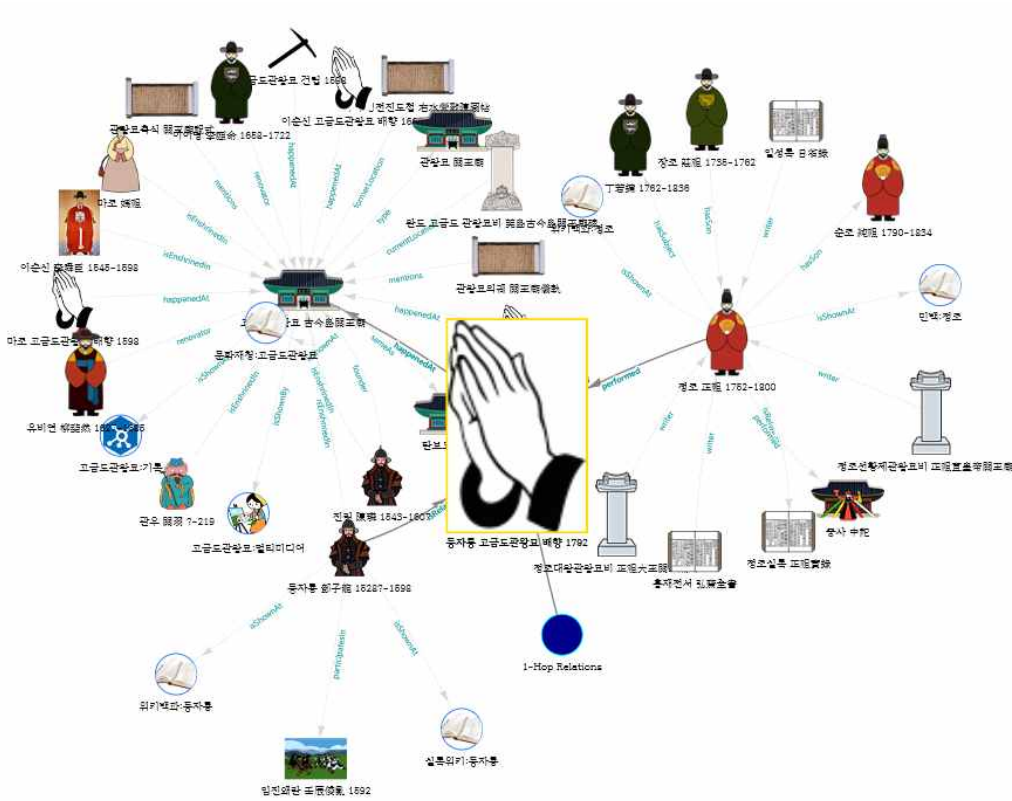


그림 IV-5. 등자룡 고금도관왕묘 배향을 중심으로 펼친 네트워크 그래프

정조 대는 고금도관왕묘가 세 번째 변화를 맞은 시기이자 유의미한 변화로는 마지막을 장식한 시기였다. 정조는 고금도관왕묘에 '탄보묘(誕報廟)'라 사액하였으며 노량해전 당시 전사한 명나라 장수 등자룡(鄧子龍)을 추가로 배향하도록 지시했다.<sup>107)</sup> 숙종, 영조, 정조 시기를 지나며 관왕묘 자체에 대명여리와 존주대의의 이념

107) 『正祖實錄』 16년(1792) 8월 19일 乙酉, “以皇朝副總兵鄧子龍, 配於康津 誕報廟, 遣官致祭. 教曰, 近閱李忠武遺事, 追想露梁之戰, 不覺撫髀長歎. 天朝副總兵鄧子龍, 以七十老將, 提二百勇士, 縱恣於滄海上, 唾手而矢滅狡夷, 其氣豪膽奮, 可謂大丈夫哉! 況居首功, 躍上忠武之舟, 直前奮突, 所俘獲無計, 偶觸火器, 中流延熬, 賊乃傳之而猶力戰. 忠武馳救之, 與之同死, 其詳在徐希辰《東征記》. 予嘗愍之, 取考《明史》本傳, 有廟食朝鮮之語, 而未始有廟食焉, 康津之都督祠堂, 又未之配, 其為欠典, 闕事, 孰大於是? 平壤 武烈祠, 以追配駱參將尚志事, 道伯建請, 朝廷既許之. 同時同事之人, 酬功報德之典, 豈或一為一否, 使天

적 가치가 덧붙여지던 상황에서 중국의 무신인 관우와 해신 마조, 조명 연합군의 지휘관이자 노량해전의 주역들인 이순신, 진린, 등자룡을 함께 모신 고금도관왕묘는 다른 관왕묘들과 차별화되는 정치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 치하에서 관왕묘 의례가 완전히 통폐합되었을 때 고금도관왕묘 또한 향사가 정지되는 사태를 피할 수 없었다. 일본 당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관왕묘의 창건 내력과 제향 인물은 자신들의 통치 이념과 부합되지 않았다. 1940년에 관왕묘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지역민들은 350년 동안 모셔왔던 관왕묘의 제향을 중단하고 묘우에 안치된 각종 소상과 위패를 철거했다. 이듬해에 관왕묘 수호 사찰이던 옥천사가 관왕묘의 정전에 불상을 안치하고, 묘우를 사찰로 바꾸었다. 이로 인해 묘우 건물은 계속 보존될 수 있었다.<sup>108)</sup>

상당 부분 훼손되었으나 건물과 명맥만은 보존된 고금도관왕묘는 해방 이후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당으로 바뀌었다. 1953년 도지사 장준기(張準基)는 유림들과 협의하여 묘우에 ‘충무사(忠武祠)’라는 현판을 걸었고, 1959년에는 정전에 충무공 이순신의 영정을 안치하였다.<sup>109)</sup> 본래 관우를 정전에 모셨던 관왕묘였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종래의 종교적, 정치적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을 뿐 아니라 중국이 아닌 조선의 영웅 이순신을 추모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묘의 주인이 바뀐 듯하다.

현재 이 묘역은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이라는 명칭으로 사적 제114호에 지정되어 국가 문화재의 반열에 든 상태이다. 외국의 무장인 관우를 대신하여 조선의 영웅인 이순신을 기리는 쪽으로 바뀐 덕분인지는 몰라도 유적의 규모와 보존 및 관리 상태는 남원, 성주, 안동 등 다른 지방의 관왕묘들에 비해 매우 양호한 편이다. 다만 기존의 관우, 마조, 진린, 등자룡 등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으며 묘역 한켠에 세워진 이이명의 완도 고금도 관왕묘비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36호에 지정된 채 남아있어 한때 이곳이 관왕묘였음을 어렵게나마 보여주고 있다.

---

將之英爽，無所寄泊乎哉？天朝副總兵鄧公子龍，陞配於陳都督祠，而初聞祠在於南海。迨今箕城駱公追配之時，欲與之同舉矣，更聞都督，與忠武配享於康津地誕報廟之傍。然則鄧公別祀，嘗配於是祠。陞配日，遣官致祭，忠武既同享，一體致祭。祭文皆當親撰矣。致祭雖有命，此時廚傳有弊，獻官以附近文倅中差送。鄧總兵與忠武公，同時捐軀於露梁，而忠武專享於南海。忠烈祠云。忠武遺事，近令內閣，撰成全書。待活印，藏一本於本祠，仍行致祭。”

108) 박현규, 앞의 책, 277쪽.

109) 유성웅 외, 앞의 논문, 39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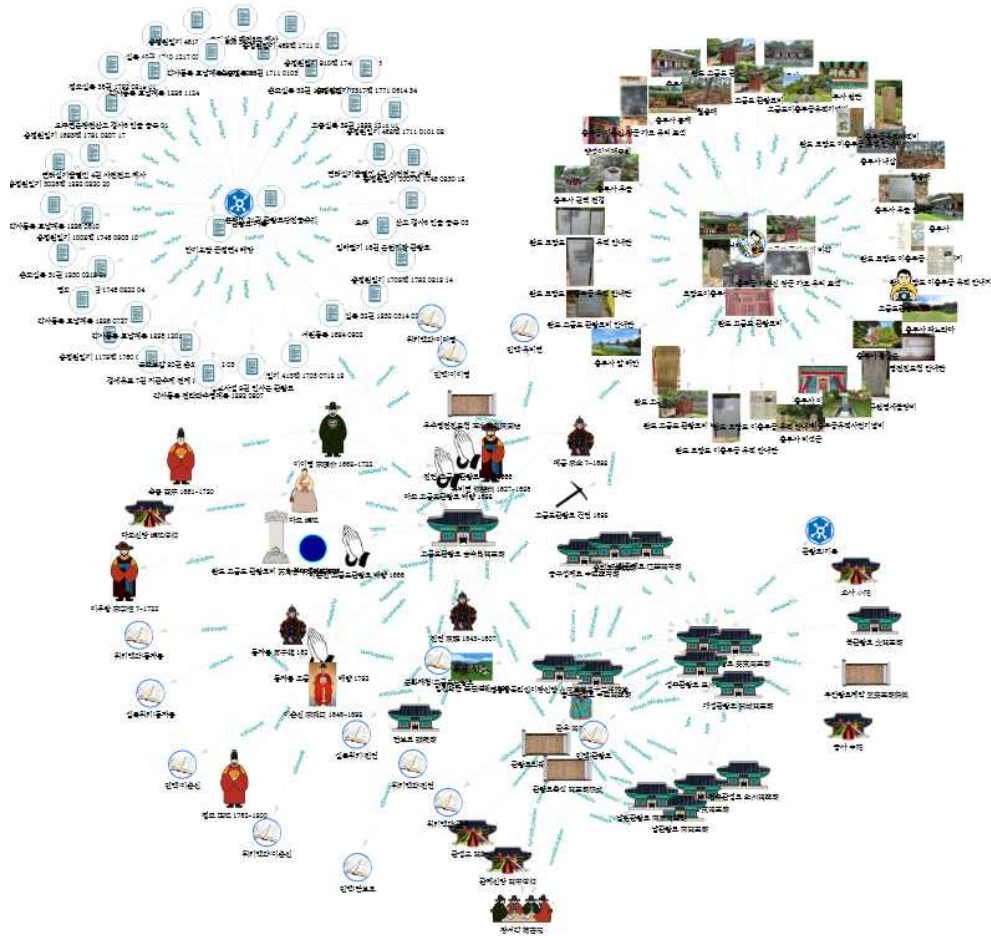


그림 IV-6. 고금도관왕묘를 중심으로 펼친 네트워크 그래프

이상의 전사를 통해 살펴보면 고금도관왕묘는 단순히 지방의 관왕묘들 가운데 하나일 뿐 아니라 건립 이래 한, 중, 일 삼국이 얽힌 역사적 배경에 따라 그 의미와 의의가 끊임없는 변천을 겪었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묘우와 향사의 변화, 그리고 이후 생존을 위해 묘우의 정체성을 바꿔야 했던 역사, 그 결과 해방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적지로 재탄생하여 현대 문화유적으로 향유되고 있다는 사실들은 다른 관왕묘들의 변천과는 차별화되는 서사를 제공한다. 본 연구자는 II장에서의 서술처럼 고금도관왕묘의 거시적 흐름을 따라 이야기를 쫓아왔지만, 다른 이용자라면 그 안에 내재된 다양한 신격과 시대, 인물, 사건 등에 개별적인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를 쫓을 수도 있을 것이다.

(추가적인 스토리텔링 예시 및 결론에 관한 내용은 추후 서술 예정)



## 【참고문헌】

### 1. 사료

『三國志』

『明太祖實錄』

『宣祖實錄』

『光海君日記』(正草本)

『仁祖實錄』

『顯宗實錄』

『肅宗實錄』

『英祖實錄』

『正祖實錄』

『高宗實錄』

『純宗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甲辰漫錄』

『古今島關王廟創建事實』

『夢經堂日史』

『西厓先生文集』

『星湖僊說』

『續雜錄』

『燃藜室記述別集』

『燕巖集』

『燕輶直指』

『熱河日記』

『漂海錄』

『荷齋日記』

『虛白堂詩集』

## 2. 단행본

- 국립문화재연구소, 『동묘의 건축』, 2004.
- 김지영, 『정조의 예치』, 휴머니스트, 2020.
- 김탁, 『한국의 관제 신앙』, 선학사, 2004.
- 김현, 『인문정보학의 모색』, 북코리아, 2012.
- 김현·임영상·김바로, 『디지털 인문학 입문』(초판 2쇄), HUEBOOKS, 2018.
- 박현규, 『동아시아 해상 표류와 해신 마조』, 학고방, 2018.
- 이마이즈미 준노스케 저, 이만옥 역, 『관우』, 예담, 2002.

## 3. 논문

- 구은아, 「중국의 관공신앙(關公信仰) 고찰: 관공신앙의 역사적 전개와 현대 관공문화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30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2.
- 김광우, 「일제강점기 대중예술 활동의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 연구 -오케레코드 사장 이철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 김명준, 「관왕묘 악장의 형성과 개찬의 의미 -정조와 고종대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77권, 민족어문학회, 2016.
- 김바로, 「제도와 인사의 관계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근대 학교 자료(1895~1910)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김지명, 「기록문화유산의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 연구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김지선, 「19세기 여항전기집 수록 인물 관계망 구현 및 분석 연구 -『호산외사』, 『이향견문록』, 『희조일사』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 김지영, 「조선 후기 관왕묘 향유의 두 양상」, 『규장각』 49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6.
- 김현, 「디지털 인문학과 고문헌 자료 연구」, 『열상고전연구』 50집, 열상고전연구회, 2016.



- \_\_\_\_\_, 「유교문화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한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 연구」, 세계유교 문화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 마스터플랜 연구, 국학진흥원, 2020.
- 김현규, 「3·1 운동에 관한 개방적 연계 데이터 구축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 남호현, 「조선후기 관왕묘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그 의미 -18세기 서울 동·남관왕묘를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101호, 한국역사연구회, 2016.
- 박현규, 「고금도 관왕묘의 마조신단 분석」, 『중국학논총』 39호, 한국중국문화학회, 2013.
- 배규범·민관동, 「정치적 관점에서 본 관우 신격화의 역사적 변모 양상 고찰」, 『비교문화연구』 42권, 비교문화연구소, 2016.
- 상기숙, 「한중 관우의례 비교 연구」, 『동방학』 41권,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9.
- 송지원, 「관왕묘 제례악 연구」, 『음악학논총』, 소암권오성박사화갑기념 논문집간행위원회, 2000
- 유성웅·장경희, 「고금도 관왕묘 연구」, 『동방학』 32권,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5.
- 이유나, 「조선후기 관우신앙 연구」, 『동학연구』 20집, 한국동학학회, 2006.
- 이수민, 「1929년 조선박람회 재현을 위한 메타아카이브 구축」,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 장동룡,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주제로 한 가상박물관 설계 구축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 전인혁, 「조선왕실 태실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연구 -서삼릉 태실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 전준영, 「한의학의 처방약재와 치료효과의 지식 아카이브 구축 연구 -『명의경험록』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 정주영, 「1970년대 소극장 연극 시맨틱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1975년 애저포창고극장, 1976~1979년 삼일로창고극장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조신호, 「고금도 관왕묘의 역사와 복원에 관한 고찰」, 『이순신연구논총』 29권,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8.

조재송, 「『삼국연의』 관우형상에 대한 사상사적 고찰」, 『중국사연구』 16권, 중국학 연구회, 1999.

차미경, 「청대 관공신앙과 관우극의 공연문화적 특징」, 『중국문학연구』 70권, 한국 중문학회, 2018.

한종수, 「조선후기 숙종대 관왕묘 치제의 성격」, 『역사민속학』 21호, 한국역사민속 학회, 2005.

#### 4. 웹 사이트

국내 관왕묘 디지털 전시관, <http://dh.aks.ac.kr/~hoonhyeok/wiki>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

디지털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

디지털 장서각, <http://jsg.aks.ac.kr>

디지털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문화재청, <https://www.cha.go.kr>

인문정보학 위키, <http://dh.aks.ac.kr/Edu/wiki>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위키, <http://dh.aks.ac.kr/sillokwiki>

한국고전종합 데이터베이스, <https://db.itkc.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https://terms.tta.or.kr>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